국내 최초 전국 서비스
10배 빠른 속도!
'올레 기가 인터넷' 출시
olleh
가입문의 : 국번없이 100번 또는 www.olleh.com

경인일보

kyeongin.com

1945년 10월 7일 창간 제21528호 1판 | 2015년 7월 6일 월요일 | 구독·광고/(031)231-5114 (032)861-3200

2015 최우수 특성화 대학 지정 – 교육부
100% 취업보장형
경복대학교

'등잔 밑' 한국관광지 다시보자

올 휴가는 대한민국으로!

9~11일 명품관광대전

日 엔저·메르스 사태 '이중고'
성수기 패키지 예약한 외국인
작년 같은기간보다 82%나 '뚝'
여권보다 국내 지도 꺼내볼때

텅텅 대한민국을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조금씩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 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5일 오후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섬 지역을 운행하는 여객선 내부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한국 관광산업이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일본의 엔저 현상 지속에, 메르스(MERS)사태 여파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 사이 한국관광의 '큰손'으로 불렸던 중국인 관광객 '유커'는 일본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메르스가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다지만 7~8월 여름 성수기가 포함된 올해 3/4분기 관광산업 전망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관광산업의 침체는 내수부진으로까지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현실 속에 국내 관광업계와 주요 관광지 주민들은 올 여름 휴가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 관광지를 찾아주길 바라고 있다. IMF 당시 국민들의 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이 외환위기 극복의 단초가 됐던 것처럼, 우리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 관련기사 3면

5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행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31일간 한국 방문 예약을 취소한 외국인은 모두 13만6천44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 하루에만 220명이 예약을 취소했다.

한국여행 성수기인 7~8월에 방한하려고 국내 패키지 관광 상품을 예약한 외국인은 20만2천541명(지난달 22일 발표기준)이다. 전년 동기간 112만9천536명과 비교하면 무려 82.1%나 감소했다. 추정 손실액은 1천85억원에 이른다. 아직 정확한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달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 수 역시 지난해 6월(127만3천627명)과 비교해 감소한 걸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국 관광산업이 악전고투하는 사이, 일본은 엔저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의 방일 외국인 관광객수는 120만7천242명으로 전년 동월(68만8천902명) 대비 75.2%나 증가했다. 4월 한 달 방일 외국인은 처음으로 170만명을 넘었다.

JNTO는 올해 1/4분기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지출한 돈이 역대 동기간 최고치인 7천66억엔(약 6조4천281억5천여만원)이었다고 발표했는데, 이중 중국인 지출이 39%를 차지했다.

문제는 7~8월 여름 성수기가 포함된 올해 3/4분기 국내 관광산업 전망이 어둡기만 하다는 점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업황 전체의 기업경기실사지수(BIS·Business Survey Index) 전망치는 '21'로 나타났다. 값이 100 이하인 경우 부정응답 업체 수가 긍정응답 업체 수 보다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한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메르스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국내 관광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

"OCI 적격분할 보기 어렵다"
전문기관 보고서 '태풍의 눈'

"세금 감면제도 악용사례" 지적
市-DCRE 2심 재판 영향 촉각

인천시와 OCI(옛 동양제철화학) 자회사 DCRE 간 '1천700억원대 세금 전쟁'에서 1심 재판부가 기업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이 같은 판결을 뒤집는 내용의 학술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이번 연구결과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OCI와 DCRE간 기업분할이 관련법에 규정돼 있는 적격분할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물적분할에 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의 쟁점과 해석'이란 제목의 이번 연구는 ▲OCI와 DCRE간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했는지 여부 ▲DCRE가 OCI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 여부 ▲DCRE가 OCI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승계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DCRE가 OCI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했는지 여부) 등 세 가지 세금 감면 요건을 중심으로 살폈다. 이는 인천시와 DCRE간 세금 전쟁의 쟁점들이다.

지방세연구원은 OCI와 DCRE간 기업분할이 이들 세 가지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우선 DCRE가 OCI에서 분할받은 화학제품제조·도시개발 사업부문 모두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분할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고,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분할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연구원의 이번 연구결과는 이 사건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DCRE가 기업분할 시 세금 감면을 위해 갖춰야 할 이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DCRE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기업분할은 OCI가 자체 재무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의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기업 분할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했다.

인천시와 DCRE간 2심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8일 서울고법 제5행정부에서 진행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中 버스추락' 사고수습 최두영 원장 숨진채 발견

공무원 버스 추락사고(경인일보 7월3일자 1면보도) 수습을 위해 중국에서 머물고 있던 최두영(55) 지방행정연수원장이 현지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지수습팀이 투숙한 지린성 지안시 홍콩성호텔의 보안요원이 이날 오전 2시50분께(현지시간) 호텔건물 바깥에 쓰러져 있던 최 원장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정부는 최 원장이 실족보다는 호텔 방에서 투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 원장이 이번 사고로 숨진 10명의 유족과 장례절차를 협의하면서 압박감에 시달려 왔고 중국의 시신 화장 종용과 유족들의 국내 운구 요구로 협의가 지연된 것이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로 숨진 10명의 시신은 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신이 도착하는 대로 해당 소속 지자체별로 장례절차를 거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인이 된 최 원장도 유족이 현지에 도착하면 시신 확인을 거쳐 별도로 운구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안(경찰)은 지난 1일 발생한 공무원 버스사고 원인을 과속 및 운전 부주의로 잠정 결론 내렸다.

연수원 강사인 소병구 전통문화예술단장은 "이번에 연수를 떠났던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물놀이 시범을 보인 적이 있어 매우 안타깝고 평소 원칙적이면서도 합리적이던 최 원장이 숨졌다는 소식에 지인들 모두 침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

한·러 스포츠페스티벌 & 경제교류 15
줌 인 송도 / '송도바이오프론트' 9

알림

전병율 교수에게 듣는 '메르스 대책'

경인일보·인천경영포럼 8일 조찬강연회

경인일보사와 인천경영포럼(회장·안승목)이 공동 개최하는 제324회 조찬 강연회가 8일 오전 7시30분 라마다 송도호텔 2층 르느와르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강연회에선 전병율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前 질병관리본부장, 전염병대응센터장)가 강사로 나와 '메르스 현황과 대응,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7월8일(수) 오전 7시30분
■ 장소 : 라마다송도호텔 2층 르느와르홀
■ 참가 문의 : 인천경영포럼 사무국 (032)818-6675

스마트 경인

수원시의회
SUWON CITY COUNCIL
120만
수원시민과 함께 –
열린의정,
투명의정,
참여의정 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의회
http://council.suwon.go.kr/main.do

‘계획관리지역’내 유기농화장품 공장 짓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내일부터 본격 시행

도내 총면적 14% 해당…오염우려 낮은 업종 허용

앞으로는 유기농화장품과 천연염색물 제조 공장 등도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화학제품 제조시설에 대한 계획관리지역 입지가 불가능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내에 유해물질이 적은 배출공장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도내 계획관리지역은 고양시 등 17개 시·군에 1천412㎢, 도 총 면적(1만172㎢)의 약 14%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천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업종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전에는 화학제품제조시설·섬유제조시설 등은 사용원료와 공정에 상관없이 입지가 불가능했다. 또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폐수·소음·악취 등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의 경우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장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 이같은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를 위해 계획관리지역 입지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계획관리지역 입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완화로 기업의 시설투자가 촉진되는 등 투자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외에도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의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300%까지 완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경우 3~4년 동안 허가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이용의무기간을 자기 주택이나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 시에는 2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지난 4일 안산 반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상황에서도 생산현장에서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인천발 KTX ‘안산 정차역’ 생기나

국토부장관, 반월산단 방문 시 건의에 ‘긍정 검토’ 답변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인천발 KTX 사업이 추진되면 안산 지역에 정차역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발 KTX 사업은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화성 어천역)과 경부고속철도 사이 2.4km 구간을 복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수원·인천 고속철도 효율화 연구’ 용역을 발주해 인천발 KTX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산단 내 태광공업의 회의실에서 이뤄진 간담회에서 안산시 관계자는 “인천발 KTX 사업 추진 시 안산 지역에 중간 정차역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고 유 장관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또 전국에 있는 산단에 주차시설 설치를 국비로 지원하고, 한정면허 발급을 통해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 수단을 늘려 노동자들의 출·퇴근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산단형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1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한편 유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열린 재생산업 추진 현황 보고 자리에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이 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계획 생략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지구의 30% 이내를 ‘활성화구역’으로 지정,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977년부터 개발된 반월산단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낡고 주거·편의시설 등이 부족해, 안산시와 입주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킨텍스 업무·숙박시설부지 매각

고양시, 1만여㎡ 757억원 제시한 노블랜드 선정

고양시는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가운데 업무·숙박시설 부지(S1) 1만1천770㎡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을 통해 매각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매각이 안 된 부지 3곳 중 S1부지 등 2곳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최근 시행해 S1부지를 757억원(입찰가격 658억원)을 제시한 대방건설(주)의 자회사인 노블랜드(주)에 매각키로 했다.

S1부지는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 중 하나의 용도를 선택해 개발할 수 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노블랜드는 앞으로 계약 체결 이후 60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하고 2년 내 착공해야 한다.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는 시가 킨텍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14개 필지 중 12개를 매각 또는 임대한 상태다.

아직 매각되지 않은 2개 부지는 200실 이상 비즈니스호텔을 지어야 하는 E2-2부지와 차이나타운 건설을 하려다 무산된 C4부지(5만5천303㎡·공급예정가 2천76억원)다.

S1과 함께 매각 입찰을 진행한 1단계 복합시설용지 E2-2(4천58㎡) 부지는 유찰돼 조만간 재입찰에 나서기로 했다.

시 마이스산업과 관계자는 “S1부지 매각대금 757억원의 수입 확보로 고양시의 킨텍스 관련 특별회계 부채 상환 등 시 재정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道 거주 외국인 50만명 돌파

경기도 거주 외국인 수가 처음 50만명을 돌파했다. 인천의 외국인 거주 비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일 행정자치부의 ‘2015년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도내 외국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55만4천160명으로, 전년도(49만2천790명)보다 12% 가량 늘었다. 한국에 사는 전체 외국인은 174만1천919명으로, 3명 중 1명꼴로 경기도에 살고 있는 셈이다.

인천의 외국인 수도 지난해보다 10% 가량 증가한 9만1천525명을 기록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 최다 지역은 안산으로 8만3천648명이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복지재단’ 설립 의결 보류

市, 큰 틀서 다시 점검

인천시가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보류했다.

인천시는 지난 3일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를 심의했으나, 의결을 보류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 계획과 기존 민간 사회복지단체와의 역할 분담 등을 보완하기 위해 심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류 이유다.

복지재단 타당성 검토가 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인천시가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던 행정자치부 협의, 관련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도 상당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시는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2년차 주요 시정 방향 중 하나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등 시 공공기관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단 설립도 큰 틀에서 다시 점검해 본다는 입장이다.

애초 시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30억원을 출연해 총 15명 규모의 복지재단을 설립할 예정이었다. 시는 복지재단에 지원할 운영비를 연간 10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시는 2011년에도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했다가 업무 중복, 재정난 등을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도 ‘지방세 승소 공무원’ 전국 첫 포상금

경기도가 지방세 소송의 승소에 기여한 시·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국 최초로 승소포상금을 지급했다.

도는 지난해 지방세 소송에서 승소해 지켜낸 도세가 모두 202억여원으로, 승소에 기여한 41건에 대해 포상금 1천938만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도세 소송 담당자에게 책임만 부여하는 것은 담당자 사기 저하와 소송 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1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도 세입 관련 소송포상금 지급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시·군에서 수행하는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담당 소송 수행자의 노력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건당 최대 50만원까지 격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이번 포상제도가 세입관련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도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공고 제2015-001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 공사명 : 서수원새마을금고 세류지점 신축공사
나. 신축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26-11번지
다. 공사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
라.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건축 연면적 840.76㎡

2. 입찰및계약방법 : 지역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제(부가세포함),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임.

3. 입찰일시 및 개찰장소 : 본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52 (화서동)

구 분	현 장 설 명	입찰등록마감	개찰일시 및 장소
일 시	(없 음)	2015. 7. 21. (화)	2015. 7. 22.(수) 11:00
장 소	본점 영업지원팀	본점영업지원팀	본점 3층 회의실
비 고	현장설명서 자료배부	16시30분 까지 입실자에 한함	입찰서제출(오전10시~11시)

4. 입찰참가자 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나.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다. 입찰공고일 기준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토건(건축, 토목)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연면적 840.76㎡이상의 단일공사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부터 발주한 신축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마. 2014년도 건축시공능력 20억원 이상인 업체.
바. 기업신용평가등급 BB+ 이상인 업체(최근1년)
사. 입찰 공고일 현재 부도, 회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와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5.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총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 마감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등으로 반드시 당 금고에 직접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일의 개시일은 입찰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일로부터 30일 이후 이어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금고에 전액 귀속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공사비 총액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
나. 본 입찰은 신청업체의 경쟁입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 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자로서 총액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동일가격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추첨방법을 정하여 입회하에 결정한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5%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0개중 입찰에 참여한 입찰참가자중에서 3인을 선정하여 그 중 3개를 추첨하여 추첨된 3개의 산술평균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정함.)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완료일은 별도 협의

8. 계약조건 공시장소 : 당 금고 영업지원팀 사무실 (☎031-256-2826)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공사입찰유의서 및 당금고 내규, 건축추진위원회에 의함.
※서류등의 허위 및 위조 등의 무효사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함

10. 제출서류

입 찰 등 록 시	입 찰 시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당해공사에필요한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사본(원본대조필)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위임장(대리인 입찰시) 1부 -시설공사실적증명서 및 해당건축물관리대장 각1부 (해당기관발행원본-공고일기준 1월이내) -입찰보증금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1부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기업신용평가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시공능력평가확인서 1부(대한건설협회발행)	-입찰참가자 신분증 -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참가시) 1부 -사용인감 -입찰서(소정양식)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본 금고 공사 설계도서,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계약서(안)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미숙지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서 자료를 본 금고 영업지원팀으로부터 배부 받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금고의 청렴계약 이행각서(소정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서류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전자입찰, 우편입찰 등 불가)
마.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금고 계약사무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금고 영업지원팀(031-256-28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6일

MG새마을금고 서수원 이사장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15 – 102호

인천교통공사 상임이사 모집공고

인천교통공사 상임이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명예정 직위 및 인원 : 상임이사 1명
2. 임 기 : 임명일부터 3년
3. 주요직무 : 사장을 보좌하며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4.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와 인천교통공사 정관 제14조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응모할 수 있음

▶ 응모자격

상임이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장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에서 부교수급 이상 교수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교통관련분야 운영기관에서 1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교통관련분야 경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결격사유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인천교통공사 정관 제14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 6.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5. 근무계약 및 보수
가. 성과계약직으로 최초 3년 계약(성과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가능)
나. 보수는 임명권자(사장)와 1년 단위 연봉계약에 의함

6.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7. 3(금) ~ 2015. 7. 20(월) 18:00까지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아니함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405-723)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인천교통공사 4층 총무인사팀
다.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양식, 사진부착) 1부.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www.ictr.or.kr) “알림마당-채용정보”에 게재되어 있는 양식 이용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각 1부(소정 양식)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업무에 대한 운영방침, 경영혁신계획 등을 A4용지 10매 이내로 기술하며, 10매 이상인 경우에는 2~3매의 요약서를 직무수행계획서 앞부분에 포함
○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별 경력증명서 각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신원진술서 2부(최종합격자에 한함)부

7. 선발 방법 및 추천후보자 발표
가. 1차 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는 2015. 7. 23(목)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
다만, 2차 면접심사를 생략할 경우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를 추천후보자 공고로 대체함
나. 2차 면접심사(※ 임원추천위원회 결정에 따라 면접을 생략할 수 있음)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 실시
○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노사화합 및 친화력, 윤리관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다. 추천후보자 통보 : 추천후보자에게 개별통보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 시행령 제56조의4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선정하여 임명권자인 인천교통공사 사장에게 추천하며 사장이 최종적으로 임명대상자를 결정함

8. 그 밖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임명대상자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반환요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해 주며, 180일 이후에는 폐기합니다.
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임원추천위원회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인천교통공사 총무인사팀(032-451-207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3일

인천교통공사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아사직전 업계 "세월호때보다 불황… 정부가 적극 나서야"

올 휴가는 대한민국으로!

7~11일 명품관광대전

인천섬 손님 전년비 41% ⬇
공항 국제선 이용객도 줄어
성수기불구 3분기전망 흐림
"소비심리 회복 축제 추진을"

인천 섬 지역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달 인천 섬 지역(영흥면 제외)을 찾은 관광객은 모두 3만9천214명으로 지난 5월(9만4천860명)의 4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세월호 여파로 관광객이 감소했던 지난해 4~6월 평균(6만5천756명) 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다. 옹진군은 인천이 메르스 청정 지역임을 강조하며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렸지만, 이미 침체된 분위기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옹진군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관광객이 증가 추세였으나 6월부터는 세월호 사고 직후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관광객이 줄어들었다"며 "인천 섬 관광업계가 최악의 침체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광 성수기인 8월 한 달 동안 인천~백령을 오가는 대형 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정원·여객 564명, 차량 70대)가 정기점검을 위해 휴항하면서 관광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8월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유일하게 인천 섬 관광객 숫자가 10만 명을 넘긴 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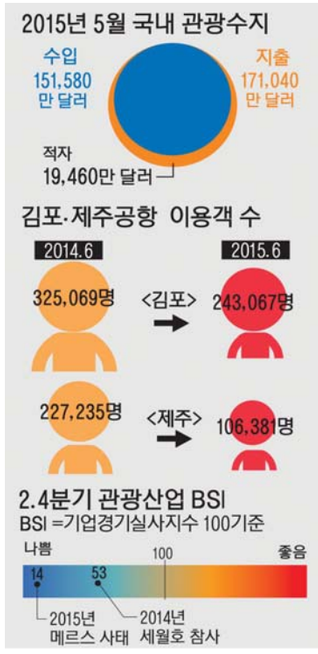
전국의 관광지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앞서 지난달 25일 산업연구원은 메르스 충격이 3개월간 지속되면 2조5천612억~4조6천366억원의 관광지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의 둔화로 이어져 내수부진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 국내 관광산업 휘청=메르스 사태 이후 국내 관광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지자체 관광업무 담당자들은 "메르스로 인해 주요 관광지 입장객이 감소했고, 지역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만만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김포와 김해, 제주공항의 지난달 국제선 이용객은 각각 24만3천67명, 37만9천166명, 10만6천281명이다. 지난해 6월 32만5천69명(김포), 37만6천895명(김해), 22만7천235명(제주)과 비교하면 김해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2개 공항의 이용객 수가 줄어들었다.

지난 5월 국내의 관광수지는 1억9천460만달러(잠정치·2천186억3천여만원) 적자에 이른다. 올해 1~5월 역시 관광수지는 14억7천380만달러(잠정치·1조6천528억6천여만원) 적자를 보였다.

■ 3/4분기 관광산업 전망 흐려=이미 메르스 여파로 지난 2/4분기 국내 관광산업 경기가 사상 최악이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업황 현황지수는 '14'(기준치 100)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53'보다 무려 39포인트나 떨어졌다. 2007년 첫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다.



| 그래픽 참조

지난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구역이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3/4분기 역시 경기상황은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관광산업 업황 전망지수는 '21'로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해 방한 외래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7~8월 여름 성수기가 포함된 3/4분기 역시 관광산업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국내 관광업계에 필요한 것은=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침체된 국민 관광 심리의 회복을 위해 정부 중심의 각종 축제, 행사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회는 이를 위해 "(정부가) 관광상품권 이용을 장려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MICE협회는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관광산업을 살리는데 중앙, 지방정부 구분할 것 없이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학회는 범정부 차원의 국내여행 활성화 방안과 세제지원 혜택 등을 요구했다.

/김민욱·김민재기자 kmw@kyeongin.com

"합리적 야당 의견 수용… 주민생활 예산 최우선"

| 인터뷰 | 손철운 신임 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인천시 집행부의 예산 편성·집행을 더욱더 잘 감시하겠습니다."

손철운(새누리당·부평구3·사진)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시 재정 운용이 어려울 때일수록, 예결위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손철운 위원장은 "여당이 생각하는 예산과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이 상충될 수 있다"며 "여야 의견을 잘 듣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야당 의견이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 적극 받아야 한다"며 "합리적·객관적인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면서 "상임위가 미처 지적하지 못한 부분도 집어내어 잘 처리하겠다"고 했다.

손철운 위원장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챙기겠다고 했다. 손 위원장은 "민원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들"이라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 의정 활동의 기본 철학"이라고 했다.

이어 "주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반드시 관철하겠다. 이런 예산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제7대 의회, 민선 6기 들어 선심성 예산을 거의 요구하거나 편성하지 않았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손철운 위원장은 인천시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손 위원장은 "인천시가 잘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땅을 매각하거나 세출을 줄이는 방식은 (재정난 극복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하는 등 부채 감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천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65억대 '농산물시장 설계용역' 5파전

건축사사무소 5곳 1차 통과
인천업체 낀 컨소시엄 형태
오늘 2차 심사 수일내 발표

65억원 규모의 인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설계용역을 누가 맡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로라하는 국내 5개 건축사사무소가 '1차 관문'을 통과, 6일 최종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본부 대회의실에서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를 한다.

인천시는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을 도림고등학교 맞은편 부지(남촌동 177의 1 일원 17만3천188㎡)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7일 설계용역 공모를 시작해 지난 4월 27일 1차 심사를 마무리했다. 6일 2차 심사에서 당선작이 결정된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업체(컨소시엄 대표사)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포스에이앤에이건축사사무소,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등 5개 소다.

설계 용역비는 약 65억원으로, 국내 유명 건축사사무소들이 각자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금액이 큰 만큼 업체간 수주 경쟁도 치열하다고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 시장에서 용역비가 65억원이면 매우 큰 사업이다. 만나기 쉽지 않은 귀한 경우"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메이저들이 가점을 받기 위해 인천업체들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킨 형태"라며 "메이저는 작품(설계)을 만들고,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은 인맥 등을 동원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돼 있는 상태다.

2차 심사는 1차 심사(투표제)와 달리 배점제로 시행된다.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 1곳이 설계용역 수의계약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르면 심사 당일(6일), 늦어도 9일 전에는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구독신청 인천 032)861-3200 수원 031)231-5503

인천공항고속도 통행료 인하
의장협 '시의회 건의안' 채택

인천시의회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제안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건의안'이 지난 3일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의장협의회는 건의안에서 "수도권 주민은 물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다른 지역의 고속도로와 형평성 있게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항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주민들이 부담하는 공항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을 제안한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공항고속도 통행료는 최근 건설된 민자 고속도로인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통행료(㎞당 66원)에 비해 3배 이상 되는 등 비싸게 책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국회법, 오늘 재의… 與, 불참 '자동폐기' 수순밟기

새정치, 다른 법안처리 협조 요청
대통령 거부권·여 강력성토 예상
'국회법 개정안' 계속 이슈화 방침

향후 여야간 대결 '뇌관' 작용할듯

당청과 여야 갈등의 진원인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위한 상정이 6일 이뤄진다.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는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국회법 개정안은 임기가 11개월도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새누리당의 표결불참 부당성을 비판하며 표결참여를 촉구하고 있어 6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사실상 정해진 상태이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160석으로 전체 의원(298명)의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6일 본회의 일정에는 정상적으로 참여, 다른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크라우드펀딩법 등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찬성표 확보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동원령'을 발령했다.

새누리당은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불참한다는 당론은 정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위헌이라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의 뜻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며, 국회법 처리를 놓고 소모적인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원내 의석의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재의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대통령 특보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청와대 국회 출장소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국회법 개정안과 정책위가 발굴한 '상위법 위반 25개 시행령'에 대한 모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 정국이 더욱 얼어붙으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7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정의종·김순기기자 jej@kyeongin.com

'유승민 정국' 분수령… 전운 감도는 새누리

친박 "사퇴의사 없으면 의총소집"
지역·선수별 입장표명 방안 검토

비박 "명예로운 퇴진 없다" 맞서
친박계 당권 장악시도 의구심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는 6일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유승민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내 친박(친박근혜)계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해 유 원내대표가 거취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사퇴시한'을 못 박은 반면, 비박(비박근혜)계는 물러설 이유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새누리당 내부에서 유 원내대표 사퇴를 놓고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친박계와 비박계간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친박·비박계 양측 모두 별도 모임을 갖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어 자칫 세력대결을 본격화할 태세다.

친박계는 6~7일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최후 사퇴시한을 정하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유 원내대표가 이때까지 물러나거나 물러나겠다는 입장표명이 없으면 사퇴를 묻는 의원총회를 소집할 태세다.

6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는 것으로 일단락되면 '5분 발언'을 통해 사퇴입장을 밝히든지, 본회의 이후 소집될 의총에서 사퇴를 선언해야 한다는 게 친박 측 주장이다.

친박계는 의총 소집을 위해 수십 명을 '지원군'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유 원내대표 사퇴를 놓고 표결까지 가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한 친박계 의원은 5일 "바깥의 예상보다 많은 의원이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는 의견을 보였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애초 유 원내대표 사퇴에 부정적이던 비박계 의원들도 적지 않은 수가 '사퇴 불가피론'으로 돌아섰다고 덧붙였다.

친박계는 물밑 여론전을 펴는 가운데 유 원내대표가 물러서지 않을 경우 충청권 의원, 초선 의원 등 지역별·선수별로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박계 의원들은 친박계에 맞서 6일 본회의 직전 별도 회동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친박계 의원들이 6~7일 사퇴 의사를 밝히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까지만 원내사령탑으로서 '시한부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된다"며 일축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유 원내대표가 내몰리는 듯 전개되는 상황에선 어떤 명분을 대든 퇴진은 퇴진일 뿐, 명예로운 퇴진은 없다"고 단언했다.

질문듣는 유대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5일 서울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재상정돼도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 뉴스

이번 사태가 유 원내대표의 사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친박계의 당권 장악 시도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청와대와 친박계의 압박에도 불구, 유 원내대표가 '6일 데드라인'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물론 7월 임시국회를 포함한 국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끌어갈 것이라는 예상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수도권의 비박계 재선 의원은 "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내놨는데 여야 협상을 주도할 원내대표를 공백 상태로 두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얼었던 당직인선 문—이 '화해 무드'

누리과정 예산·지방교육재정 확대
野·시도교육감협 논의기구 구성키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 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지방교육 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희국 회장 등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누리 과정 예산, 지방교육재정 확대 등 교육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하고 사회적 논의기구 외에 ▲누리 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 편성 ▲관계 법률 정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의 25% 이상 상향 조정 등에 대한 공동보조를 합의했다.

문 대표는 이날 "누리 과정 문제에 대해 여와 야, 전국의 시도교육감, 그리고 보육·교육 전문가를 포함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여기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예산조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기존의 20.27%에서 25.27%로 5%포인트 상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며 "누리 과정 중단은 물론, 초·중등 교육재정까지 파탄날 수밖에 없다. 누리 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심야 회동 장시간 대화 갈등 풀어
당무 운영전반 '공감 정치' 약속
일부인선 '신경전' 갈등소지 여전

당직 인선을 둘러싸고 냉전에 빠졌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다시 손을 맞잡았다.

새정치연합 문-이 투톱은 4일 광주를 찾아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수영예선경기를 함께 관람했다. 이후에는 광주 학생운동 기념회관에서 이 원내대표의 조부인 독립운동가 우당(友堂) 이회영 선생을 기리는 '난잎으로 칼을 얻다-우당 이회영과 6형제 展'을 함께 관람하며 당의 결속과 화합을 약속했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한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인데 그것을 실천한 분들"이라며 "마침 이 원내대표의 조부이시기도 해서 더욱 뜻깊다"고 이 원내대표를 우회적으로 추켜세웠다. 문 대표는 또 "당의 단합을 좀 더 다지고 되새기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이 원내대표와 목요일(2일) 긴 시간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고 말했다.

이대표, 메르스대책본부 방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본부를 방문,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 뉴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심야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사무총장 인선에 반대하며 열흘 동안 거부했던 당무에 복귀하기로 했고, 문 대표는 당무 운영 전반에 대해 원만한 소통을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당직 인선에 대해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문 대표가 공감했다"며 "앞으로 당직 인선을 포함해 모든 당무에 대해 깊은 소통을 통해 같이 공감하는 정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이 투톱이 모처럼 화합의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외견상 계파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부 당직 인선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언제든 휴전이 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원내대표 등 비주류 측은 정책위의장에 최재천 의원, 조직부총장에 김관영 사무부총장이 겸임하는 방안을, 문 대표 등 주류 측은 범친노로 분류되는 정세균계의 강기정 정책위의장의 유임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5호선 조기개통·9호선 하남연장 이현재, 시민서명부 국토부 전달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의원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을 만나 '5호선 조기개통과 9호선 하남연장'을 위한 '하남시민 2만580명의 성공메시지'를 전달하고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2월 13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전 장관을 만난데 이어 4월 10일 신임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만남 이후 올해 세 번째다.

새누리당 이현재(하남·사진 오른쪽) 의원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5호선 조기개통과 9호선 하남연장'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현재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5호선 연장(하남선)은 2018년과 2020년 단계별 개통이 예정돼 있는데 3만7천세대의 미사강변도시 입주가 완료되는 2017년부터 하남시민들은 심각한 교통대란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미사·풍산역은 입주완료(2017년)에 맞춰 조기 개통하고, 종점인 검단산역까지도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이를 위해 내년 국토부 예산으로 책정된 1천150억원 이상 국비 확보를 위해 지원해 달라"며 "올해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하남선 조기완공을 위해 추경에도 하남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9호선 하남연장과 관련, 이 의원은 "이미 2차례 장관에게 요청한 바와 같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현재 고덕강일1지구까지 확정된 9호선을 하남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반영시켜, 하남시가 장래 36만 인구에 걸맞은 교통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장관은 "5호선 조기개통에 필요한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기완공을 위한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아울러 "9호선 하남연결 역시 하남시민들의 염원을 확인한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장관 면담에는 김승용 하남시의회 의장, 윤태길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윤재군 하남시의회 부의장 등이 동행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법사위 '재·보궐선거 年 1회로 축소' 본회의 상정

연 2회 시행되고 있는 재·보궐 선거가 연 1회로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는 농번기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진행된다. 또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재보궐선거일에 실시하지 않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에 하도록 고쳤다. 이와 함께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예외적으로 재보궐선거를 진행하며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올해 10월에 실시 예정인 보궐선거의 경우는 개정안 시행 전까지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예정대로 진행된다.

법사위는 더불어 재외선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경인정가

친박 '유승민 밀어내기 집단행동' 자제 촉구

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사진)의원은 친박(친 박근혜)계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위한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지난 3일 보도자료에서 "친박 핵심을 자처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한다"면서 "지금의 상황은 유 원내대표를 밀어낼 수 없다. 오히려 사퇴해 줄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때도 박근혜 캠프에 가담했던 '원박'(원조 박근혜)으로 분류된다.

한 의원은 "들리는 소리가 6일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이번 국회법 사태는 의원총회에서도 봤듯이 초선 몇 명 앞장세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저도 친박 핵심으로부터 탈박(脫 박근혜), 배박(배신 박근혜)으로 분류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만이 진짜 친박이라는 배타심이 지금의 오그라든 친박을 만들었고, 오직 나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친박이 지금의 소수친박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시립 인천의료원 방문 메르스 의료진 격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홍영표(부평을·사진) 위원장은 지난 3일 시립 인천의료원을 방문해 메르스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허종식 남구갑위원장·신은호 시의원·김현국 시당 사무처장 등과 인천의료원을 찾아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 치의 오차 없이 메르스에 대처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또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은 만큼 인천의료원에서 요청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보완공사 비용 국비 28억원과 병원 운영비 등이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에는 인천시청 4층에 마련된 '메르스 비상대책상황실'을 방문해 방역 및 대응대책을 점검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향후 국회 차원에서 인천의료원 등 공공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용인시장 의회무시 불통행정" 신현수 의장 작심발언 '뒤숭숭'

의회개원 1주년 브리핑자리 즉흥적인 시정 운영 직격탄 같은당 市정책비판 '이례적' 신의장-정시장 갈등설도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의정브리핑중인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 /용인시의회 제공

새누리당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이 이례적으로 같은 당(새누리당) 정찬민 용인시장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3일 신 의장이 자청해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의정 브리핑 자리에서다. 지난 1년 정 시장과 큰 불화없이 지내온 신 의장의 이날 작심발언을 두고 이런저런 추측과 배후설까지 나오는 등 안팎이 종일 뒤숭숭했다.

브리핑에서 그는 "정 시장의 역점시책 중 하나인 '줌마렐라 축구단' 창단은 동기와 목적은 바람직하지만, 시간을 두고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해야 함에도 보여주기식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정 시장의 역점 시책인 소규모 산업단지 20개 설립 유치 정책도 비판했다. "소규모 산단의 분산적 개발은 적정 규모의 도로와 환경시설 확보 문제 등으로 또 다른 도시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동면 용인테크노밸리 산단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와 의회간 '불통'도 꼬집었다. "지난 1년간 집행부는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챙겨야 할 사안은 의회에 말이 없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은 협의조차 없이 의회로 떠넘겼다"며 "최근 발표된 말 산업 특구지정도 시의회에 설명 한 번 없이 결정됐다.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 시장은)인기 영합식 즉흥적인 시정 운영을 자제하고, 오직 용인만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하며 "용인시는 재정난을 딛고 고통과 눈물로 희망을 찾고 있다. 시의회도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절대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브리핑의 상당 부분을 정 시장 비판에 할애한 그는 (정 시장 비판은) 강한 의회상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지난 1년 온건했던 그가 갑자기 강성 발언을 쏟아내자 배경과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돼 종일 행정타운을 술렁이게 했다. 당장 신 의장과 정 시장의 갈등설이 제기됐다. 정 시장에 불만을 가진 지역 정치권이 신 의장을 대타로 내세웠다는 설도 나왔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브리핑 내용은 신 의장이 스스로 만들어온 것으로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정 시장 측은 당황스럽다면서도 시정을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협력해 용인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시민들과 소통 생활정치 펼칠 것

'취임 1년'을 말하다 **김진우 수원시의장**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제10대 수원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김진우 의장은 지난 1년간 전 의원들과 여·야간 정쟁을 떠나 시민과 소통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10대 의회의 의정목표를 열린의정, 참여의정, 투명의정으로 정하고,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쟁에 앞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히 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왔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의회 김진우 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여·야간 정쟁을 떠나 시민과 소통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평가했다. /수원시의회 제공

의회상징 한글화·홈피개편 사회적약자 조례제정 성과
'참여·투명 의정' 실현 목표 안전·삶의 질 향상 힘 집중

이를 위해 김 의장과 의원들은 지난해 개원 직후 한자로 표기돼 있던 수원시의회 상징물을 한글로 변경, 시의회 문턱을 스스로 낮추고 시민들 곁으로 다가섰다.

또 시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해 시민들과의 소통공간을 강화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특히 10대 의회의 가장 큰 성과로 지난 1년간 일자리 창출 지원, 군 공항 이전 지원,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 33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한 것을 꼽았다.

조례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밀접한 연관성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지난 1년간 3번의 정례회와 5번의 임시회 등 총 103일간의 회기 일수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103건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했고, 총 16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며 "특히 의원들이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지역별 현안 등 생활 밀접형 건의안 등을 채택했고 수원시의 입장을 듣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의원이 전문성을 갖고, 의회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의원들 간 형성돼 모든 의원과 공부하는 의회로 노력했다"며 "특히 자치분권이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토론회 등 의원들 간은 물론, 시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문화 확산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광주시의회가 제23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4년도 광주시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었다. /광주시의회 제공

이현철 시의원 "광주시장 채무감소 특단 노력" 촉구

광주시가 지난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과도하게 집행잔액을 발생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가 광주시의회에 보고한 '2014년 광주시 결산보고서'를 보면 광주시의 총자산은 2조7천768억7천760만원, 총부채는 1천465억7천105만원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의 경우 광주시 지방공사의 채무(23억5천800만원)까지 포함하면, 1천489억900만원에 이른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절대 부채율 5위, 예산비율 부채율 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한 이현철 시의원은 "광주시장은 광주시 채무감소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시가 2014년 결산에서 미집행잔액을 223억400여만원으로 보고한 것과 관련, "지난해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도로사업과의 경우 2013년도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을 원인행위 없이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도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사업 수립 시 타당성, 실현 가능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이현호 도의원, 관정개발비 확보 가뭄 해갈 이천 농가피해 최소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현호 (새누리·이천1·사진)의원이 심각한 가뭄으로 이천시 관내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예비비 3억2천만원을 확보해 '관정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관정 개발은 가뭄 극심 지역인 대포지구(중리대포), 안평지구(호법 안평), 관3리지구(마장 관3리), 관2리지구(마장 관2리), 갈산지구(증포 갈산), 진리지구(진리동), 선읍지구(신둔 장동), 서경지구(모가 서경) 등 8곳으로 수혜면적은 42㏊이다. 이현호 의원은 "가뭄해갈을 위해 이천시와 함께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시흥시 10일까지 행정감사

시흥시의회(의장·윤태학)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시흥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6~10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감사 대상 사무는 ▲용역발주 현황 ▲시흥시동 직제순서 현황 ▲보육지원 운영현황 ▲다문화 사업 현황 ▲국공유재산 및 시유지 관리실태현황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업체 관리, 운영실태 ▲자전거도로 관련 현황 ▲클린에너지센터 추진현황 등이다. 또 ▲월곶에코피아 추진현황 ▲공영주차장 설치·운영 실태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추진현황 및 향후운영계획 등 22건으로 상임위별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경기도 하반기 뜨는 부동산
>상< 주목받는 신도시 2곳

금리 인하로 풀린 자금 중 상당량이 부동산으로 향하고 있다. 오랜 침체기에도 청약 열풍이 식지 않았던 판교 동탄 광교를 이어 새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도내 부동산 핫플레이스는 과연 어디일까. 신도시와 역세권, 상가 등으로 나눠 관심지역을 살펴본다. | 편집자주

軍공항 이전터에 '7만 자족도시'

수원비행장 /경인일보DB

수원 '스마트 폴리스'

전체 525만㎡ 절반 공원·쇼핑단지 등 계획

"들썩이는 시장 본격 개발땐 경쟁력 높아"

수원은 광교 열기가 식기도 전에 '신상' 개발 계획을 발표해 또 한차례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6월 초 국방부가 수원 공군기지 이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 발표 한 날, 수원시는 '스마트폴리스'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공군비행장 이전 부지에 첨단 산업단지와 주거, 상업시설이 결합된 인구 7만 명 규모의 자족형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525만㎡ 부지 중 절반 이상인 330만㎡에 야외 음악당, 뮤지엄,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고 쇼핑, 의료, 연구단지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소식에 공군비행장 인근 권선동의 한 아파트 단지 미분양 물량이 순식간에 팔려 나가는 등 서수원 일대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수원 일대인 장안구와 권선구의 올해 1분기 상승률은 각각 1.55%, 1.14%로, 영통구(0.89%), 팔달구(0.59%)보다 높았다. 인근 부동산 업자는 "서수원일대는 지리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매우 좋은 위치여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면 경쟁력이 천정부지로 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호재 풍부 판교·동탄 잇는다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삼성단지·KTX·주한미군 이전 등 기대감

인근 소사벌도 무서운 오름세 '전망 탄탄'

수원시 개발 소식이 발표되기 한 달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산업단지에서는 세계 최대규모의 삼성반도체단지 기공식이 열렸다. 고덕국제화지구는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및 고덕면 일원에 사업면적 1천735만5천371㎡ 규모로 개발된다.

삼성전자 산업단지 건설, 수서~평택간 KTX개통, 주한 미군 이전 등의 개발 호재가 잇따르며 판교, 광교, 동탄을 잇는 신도시가 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일각에서는 2017년 서울과 경기 북부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이 평택으로 옮겨오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5년 내 평택 인구는 두 배로 늘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고덕신도시에 앞서 건설된 소사벌을 비롯한 주변 아파트 시세는 이를 입증하듯 최근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다. 분양가가 1억9천990만원이었던 현촌 대림e편한세상은 지난 4월 입주 이후 매매가가 2억5천~2억7천만원 정도로 훌쩍 올랐다. 부동산 관계자는 "올해 말 서울 수서에서 평택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 61㎞구간이 완공되고 KTX 평택 지제역이 준공되는 등 교통망 개선으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잠정 중단한 만큼 희소성까지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 고덕산업단지 부지 /경인일보DB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상반기 1순위 청약경쟁률 10년만에 최고치 '9.4대 1'

올들어 상반기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은 9.4대 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 분양으로 이후 최고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9.9대 1, 경기·인천 4.7대 1, 기타 지방 4.2대 1을 기록했다.

이중 경기·인천지역은 지난 2011년 0.6대 1에서 올 상반기 4.7대 1로 해마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 일부 단지의 경우 경쟁률이 수백대 1을 넘어서는 등 지역의 분양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 분양한 위례신도시내 우남역 푸르지오 3단지는 201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이와관련 부동산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청약 제도 개편 등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시중銀 주택담보대출 잔액 9조원 증가… '5년來 최고'

국내 7대 시중은행의 6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농협·기업 등 7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5월말 330조9천403억원에서 6월말 321조439억원으로 9조8천964억원 줄었다. 하지만 이들 은행이 지난달 안심전환대출분 19조1천716억원을 주택금융공사에 팔아 유동화한 점을 고려한 한 달 사이의 실질 증가액은 9조2천752억원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지난 2010년 이후 증가액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

최근 5년간 6월 증가분과 비교해 보면 지난달 증가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지난달 증가폭은 최근 5년간 6월에 가장 많이 늘었던 지난해(2조5천928억원)보다 3.6배에 달한다.

주택담보대출 총액도 크게 늘었다. 이들 7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010년 6월 232조3천271억원에서 5년만인 지난달(321조439억원)에 약 100조원(43.0%) 증가했고 안심전환대출 유동화 금액까지 포함한다면 120조원(51.7%)가량 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50%로 인하한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 7월에는 대출금리가 2%대 중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양평주민도 양평수박 '양껏'

생산량·매출 증가따라 '지역우선 할당제' 도입

"우리 양평군민도 양평 수박 좀 먹어 봅시다."

양평군이 당도 높은 지역내 수박에 대한 '지역 우선 할당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지역민들이 지역에서 양평 수박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청운면 전문단지 등에서 생산된 양평 수박의 전량은 서울 가락동시장으로 유통돼 사실상 인근 지역 판매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이 양평 수박을 구입했다면 대부분은 서울을 거쳐 다시 양평으로 돌아온 수박이 상당수였다.

하지만 군은 수박 직거래를 통한 소득증진과 관내 생산 우수농산물의 지역내 유통을 위해, 올해부터 7개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매장 등에서 양평 수박을 선보이고 있다. 군의 이 같은 결정은 재배농가 확보 등을 통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생산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군은 지난해 서울 가락동시장을 통해 수박 재배농가들이 18억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농가와 재배면적도 늘어 78개 농가가 40ha에서 1천872t의 물맑은 양평 수박 생산을 통해 25억여 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할당제 판매 도입을 가능케 했다.

김선교양평군수가 가락동에 납품된 물맑은양평수박을 들어 보이며 대박을 기원하고 있다. /양평군제공

군은 지난 3일 김선교 군수를 비롯 박정철 조합장, 최봉구 청운수박연구회장, 수박농가 농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 맑은 양평 수박 출하기원제'를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가졌다.

양평 수박의 안정적인 출하와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이날 행사에서 김 군수는 "친환경 농업 메카 양평에서 재배한 미래 지향적인 안전하고 신선한 수박인 만큼 이번 인연을 통해 믿고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이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인범·신선미기자 sib@kyeongin.com

'떠나는 메르스' 반기는 특급호텔

라마다프라자수원 등 다양한 여름패키지 선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가 한풀 꺾이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특급호텔들이 고객유치를 위한 다양한 '여름 패키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5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라마다프라자수원은 다음달 31일까지 '베스트 서머 패키지'와 '캐리비안베이 패키지'를 기획했다.

베스트 서머 패키지를 예약한 고객에게는 객실 1박과 함께 사우나 무료, 생맥주 제공,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이용, 체크아웃 시간 연장 등의 혜택을 준다.

캐리비안베이 패키지 이용 고객에는 디럭스룸 1박과 함께 캐리비안베이 종일권 2장을 증정한다.

또 전국 16개 앰배서더 호텔은 '국내 호텔 서머 프로모션'을 공동으로 기획, 앰배텔 멤버십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전국 16개 앰배서더 체인 호텔 객실을 최대 20%까지 할인하는 특전을 제공한다.

별도로 노보텔앰배서더 수원은 '더스퀘어' 뷔페에서 '얼리 서머 칵테일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이 기간에만 블루홀, 레드스노우, 골든비치 등의 여름 칵테일을 할인해 판매한다.

임페리얼 팰리스 서울은 '빈티지 서머 패키지'를 예약한 고객에게 객실 1박과 함께 로비라운지 델마르에서 팝페라 관람 혜택을 제공한다. 파크 하얏트 서울도 장미꽃잎을 띄운 욕조와 버블 입욕제, 고급 샴페인 등을 준비한 '서머 로맨스 패키지'를 준비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메르스 암초에 걸린 인천항 크루즈 관광

올 기항횟수 76회 불과… 계획대비 50%가량 급감

IPA "中현지 마케팅 준비… 관광객 재유치 할것"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맞물려 인천항의 크루즈 기항과 카페리 여객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인천항의 올해 크루즈 기항 횟수는 76회로, 예상 크루즈 관광객은 12만4천여명이다.

이는 IPA 등이 올 초 예상했던 인천항 크루즈 기항 횟수 및 크루즈 관광객수(151회, 30여만명)와 비교했을 때 50%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전국적으로도 당초 594회 국내로 입항할 예정이던 크루즈 기항횟수는 62차례 줄어든 532회로 10% 이상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2일 IPA, 인천시를 비롯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등과 함께 일본 등으로 기항지를 변경한 크루즈를 국내로 재유치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크루즈 선사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의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해 5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크루즈 마케팅 예산에 10억여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3일 관광업계 동향 점검을 위해 찾은 제주도에서 크루즈 관광마케팅을 위한 사업비 15억원도 별도로 추경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중국을 연결하는 카페리 관광객도 전년 동월 대비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IPA가 가집계한 지난달 인천~중국 카페리 관광객은 4만8천395명으로 이는 전년 동월 6만9천209명보다 30% 감소한 것이다.

인천항 카페리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인천항으로 입항한 승선객이 10명 미만인 경우도 많이 있다"면서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인한 영향보다 이번 메르스의 영향이 더 크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IPA관계자는 "크루즈와 카페리 등을 이용해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관광객들을 재유치하기 위한 중국 현지 마케팅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면 중국 현지를 찾아 선사와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인천항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견본주택 '구름 인파' 송도국제도시내 최대 단지이자 중소형 주택으로 구성된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모델하우스가 지난 4일 오후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청라시티타워 유찰… 사업성 높이기 나선 경제청

기본 설계 준수 사항 '완화'

9월 건설·운영제안서 공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시티타워사업의 사업성 높이기에 나섰다.

지난 3일까지 진행된 청라시티타워 재공모(경인일보 6월9일자 7면 보도)에도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한 기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9월2일까지 청라국제도시 청라호수공원 중심부 복합용지 33만58㎡ 일대에 시티타워, 복합시설을 건설·관리·운영할 사업자의 제안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시티타워 공사비를 기존 2천577억원에서 3천33억원으로 증가시켰다. 또한 기본설계 준수사항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였다. 외관, 기능, 안전을 제외한 부분은 사업자, 인천경제청, LH 등이 협의해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설계대로 시공하면 내부에 공간 활용도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확정되면 TF팀을 만들어 내부 구조에 대한 부분은 협의해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시티타워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도 나섰다. 청라국제도시로 연장되는 전철 7호선의 역사를 시티타워에 설치해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내 면세점 유치를 결정할 때 시티타워 복합시설에 최우선 허가가 가능하도록 협조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한편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연면적 3만1천758㎡의 관광·레저·문화·첨단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복합된 453m 초고층 타워와 위락·쇼핑·문화 기능이 집적화된 주변 복합시설(2만58㎡)을 연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인천제조업 올해 3분기 '회복' 움직임

BSI 조사결과 103 기록

인천지역 기업들은 올해 3/4분기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지역의 3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3/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전망치는 '103'을 기록했다. 기준 수치인 '100'을 넘어서며 향후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가계부채 부담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못하며 올해 2/4분기 BSI 지수는 '78'(전 분기에서 전망한 수치는 101)에 머물렀었다. 2010년 4/4분기 이후 19분기 동안 기준(100)보다 낮은 수치가 유지된 것이다. 체감경기가 5년째 하향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조사 보고서에선 1%대 저금리 정책 기조 연장 등에 힘입어 가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 움직임을 보이던 경제 상황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에 있어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과 경기 정상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올해 3/4분기 대외 여건들 중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는 '유가 및 원자재가 불안정'(33.1%), '엔저현상 장기화'(23.1%), '중국 경제성장 둔화'(16.3%), '미국경제 회복 지연'(11.9%)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세계 자본흐름에 변화를 초래해 신흥국 시장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실물크기의 슈퍼히어로와 '찰칵' 5일 오전 인천시 남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5층 문화홀에서 진행 중인 '어벤저스 슈퍼 히어로' 캐릭터 전시회를 찾은 시민들이 실물 크기의 모형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방학을 맞은 어린이를 위한 슈퍼 히어로 인기 캐릭터전시전으로 영화속 장면을 재현한 디오라마, 실물 크기의 슈퍼 히어로 등을 만날 수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中진출 온라인 보부상 탄생

온라인 쇼핑몰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온라인 보부상, '인상'(仁商)이 탄생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6월22일~7월2일 54시간 과정 교육을 마친 35명이 1기 인상으로 배출됐다고 5일 밝혔다.

1기 인상은 교육을 통해 글로벌 전자 상거래 구조를 배우고, 중국 온라인 현황과 구매 행태 등을 분석했다. 또 중국의 온라인 몰 내 상품 등록, 메신저를 활용한 고객 관리, 이벤트 기획 등을 익히고 온라인 쇼핑몰 제작 방법, 사진 촬영 기술 등을 교육받았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1기 인상을 대상으로 앞으로 10주 동안 담임제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 기간 1기 인상은 판매 아이템을 선정하고 상품 공급, 상점과 고객 관리, 배송 서비스, 온라인 마케팅 등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는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관계자는 "중국은 2013년부터 B2C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가 전년 대비 59.4%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시장 거래 규모는 94배 늘었다"며 "화장품, 패션 의류, 잡화, 주방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인상들이 중국 온라인 시장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진기자 psj06@kyeongin.com

유통업계의 매출 효자 품목이 아웃도어에서 식품, 생활용품 등으로 바뀌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올해 들어 아웃도어 판매는 다소 주춤한 상황이며, 그 틈을 식품과 생활용품 판매 상승이 차지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멋'보다 '맛'

유통업계 효자품목 아웃도어➡식품·생활용품 '변화'

변화는 현재 진행 중인 백화점 여름 정기 세일 매출에서도 감지된다. 롯데백화점 인천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등의 세일 첫 주 매출을 보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장르가 식품, 생활용품, 가전 등이다. 이들 장르는 전년 동기 대비 20~30%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 반면, 아웃도어 매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매출 효자 장르가 바뀌면서 백화점 내부에서는 해당 장르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인천 내에서는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변화가 눈에 띈다. 롯데인천점은 지하 1층 식품 매장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푸드코트를 과감하게 없애고, 인기 있는 맛집을 유치해 대형 매장으로 넣는 식이다.

오는 17일에는 부산의 인기 빵집으로 이름을 알린 'OPS 베이커리'가 입점한다. 당일 제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OPS 베이커리는 독특한 레시피, 다양한 종류의 빵으로 30~40대 여성에게 인기가 높다. 아이들이 학원 가기 전에 먹는 빵이라는 뜻의 '학원전', 슈크림빵, 밤식빵 등이 대표 인기 빵이다.

OPS 베이커리는 지하 1층에 약 165㎡ 규모로 들어선다. 또 이달 말께 백화점 1층(로데오거리 방향)에 카페형 매장을 추가 오픈한다.

이에 앞선 6월30일에는 한식뷔페 '계절밥상'이 190석 규모로 롯데인천점 지하 1층에 자리 잡았다. 70여 종의 한식, 다양한 제철 먹거리, 디저트 등을 제공하는 계절밥상은 오픈과 동시에 8월 말까지 사전 예약이 완료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롯데인천점은 맛집 릴레이 이벤트로 백화점 내 뷔페 레스토랑 프리가 프리미엄, 계절밥상, OPS 베이커리 3곳을 모두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은품 증정 행사도 준비 중이다.

/박석진기자 psj06@kyeongin.com

인천북항 배후단지 진입路 2017년 말까지 조성 합의

협의회 '도로' 민원 권익위 제기

인천시·IPA·서구 조정위서 의결

입주기업 경쟁력 향상 도움 기대

지난 3일 오후 북항배후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역할분담에 합의한 남정섭 북항배후단지협의회 회장, 배국환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강범석 서구청장, 유창근 인천항만공사 사장(왼쪽부터)이 합의서를 들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북항의 항만배후단지 진입도로가 내후년 하반기까지 조성될 전망이다.

5일 인천항만공사(IPA)와 북항배후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에 따르면 청라지구에서 북항 방향으로 연결되는 850m 길이의 진입도로가 오는 2017년 말까지 조성된다.

인천시, 서구, IPA, 협의회 등은 지난 3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하반기까지 진입도로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인천북항의 동부 익스프레스 앞에서 인천북항 배후단지까지의 도로 420m 구간을 우선 개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구는 착공에 앞서 도로 부지 내의 폐기물 처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IPA는 전체 850m 진입도로 개설비용 280억여원 가운데 25억원을 시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과는 인천시, 서구, IPA 등이 북항배후단지의 진입도로 개설 주체를 두고 이견을 보임에 따른 것이다. 진입도로의 개설이 지연되면서 입주 기업과 5천여명의 직원 등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협의회는 지난 2012년 10월 북항배후단지의 준공 이후 진입도로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면서 조정이 이뤄졌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오는 2017년 말께 준공 예정인 제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협의회 관계자는 전했다.

유창근 IPA 사장은 "북항배후단지 입주기업들에게 도로 개설이 부진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번 조정에 따라 최대한 빨리 지원해 진입도로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정섭 협의회 회장도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중에 한 가지였던 진입도로 개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IPA를 비롯 시와 서구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예산을 투입해 진입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답했다.

한편 인천북항 배후단지는 지난 2012년 10월 56만㎡ 규모로 조성됐으며, 19개의 수출입 기업이 입주해 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IPA, 인천항 동반성장 아이디어 공모

'벌크화물 증대' 외부공모 1위에 선정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인천항의 실현 가능한 동반성장 아이디어 공모 결과 '인천항 내항 벌크화물 증대를 위한 유치 노력'을 외부공모 1위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IPA는 지난달 4일부터 10여일 간 인천항 동반성장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해 총 20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이 가운데 내부·외부 각 3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영진공사의 사원인 노 씨는 인천항 벌크화물 증대를 위한 IPA, 하역사, 협력사 간의 벌크화물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실시 등을 제안, 외부공모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외부 2위를 차지한 대우로지스틱스의 김영석 과장은 'CIQ 기관 협업 통한 인천항 물동량 증대'를 주제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원료를 낮은 제품의 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CIQ 기관의 협업을 통한 물동량 증가를 이끌어 낼 것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대우로지스틱스의 김병화 상무는 '알기 쉬운 인천항 배우기'를 주제로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강연과 특강 등을 통해 인천항을 알리자고 제안, 외부공모 부문 3위에 올랐다.

내부 공모에서는 정민철 IPA 물류산업육성팀 주임의 인천지역 항만·경영 관련 협력 조직 구성을 내용으로 한 'ICP 구성·운영을 통한 중소협력기업 역량강화'가 1위를 차지했으며, 이은정 IPA 항만운영팀 과장의 '인천항 통합물류센터 바다물 운영'과 윤영길 사원의 'LNG 연료 추진 선박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이 각각 2, 3위로 선정됐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항공·관광업계 "中 유커 다시 모셔라"

아시아나·인천공항공사 등 협력

中 언론·파워블로거 200명 초청

한강유람선 탑승등 이벤트 행사

'메르스 불안 해소' 알리기 나서

중국 여행사 사장단, 언론인, 파워블로거 등 200명을 대상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가 다음 주에 개최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발길을 끊은 중국관광객을 잡기 위해서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간 중국 전 지역 대표 여행사 사장단 150명과 언론인 40명, 파워블로거 10명 등 총 200명의 방한단을 초청, 한국관광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에 머무르며 아시아나항공과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공사, 롯데면세점, 롯데호텔, 롯데월드어드벤처, 하나투어와 공동으로 마련한 한강유람선 관광, 제2롯데월드 방문 등 이벤트에 참석한다.

또 서울을 찾는 중국인의 73%가 방문할 만큼 대표적인 '유커(遊客)' 인기 관광지인 명동에서 '걷기'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국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감소세임에도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예약 취소가 지속되고, 외국 관광객이 전년 대비 하루 평균 21% 감소(한국관광공사 통계)하는 등 국내 관광산업의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중국지역본부에서 중국 여행사와 관광업계 실무자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메르스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해 왔다. 메르스 대책의 일환으로 법무부도 지난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와 '일본 단체비자 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24개 도시, 32개 노선으로 취항국가 중 가장 많은 노선을 운영 중이며, 중국은 전체 여객 매출의 18.9%를 차지, 단일 국가 중 가장 큰 시장이었으나 메르스 여파로 인해 제일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김수천 사장은 "공공과 민간 기관이 힘을 모아 기획한 이번 행사는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에게 메르스 종식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홍빈기자 sky@kyeongin.com

지난달 27일 인천항에 입항한 '현대 롬비치호'에서 처음으로 미국산 냉장 축산화물의 하역작업이 진행됐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신항 냉장·축산화물 '실시간 검역'

인천신항에서 냉장·축산 화물을 실시간으로 검역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다. 5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인천신항으로 입항한 G6의 컨테이너 선박 '현대 롬비치호'에서 하역된 미국산 특수 냉장 축산 컨테이너 화물 3개가 10여분 만에 검역 작업을 마쳤다.

이날 인천신항으로 반입된 물량은 인천신항이 지난달 1일 개장한 뒤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며, 인천신항의 냉장·냉동 식품의 검역체계와 하역 과정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 물량이다.

농림축산식품검역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가 진행한 이번 검역에선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에 힘입어 현장에서 10여분 만에 운송 통보 허가서가 발행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본부세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국립인천검역소, IPA 등 인천항을 움직이는 6개 기관은 지난달 1일 인천신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 특수 냉장축산 화물의 수입이 잇따르는 등 인천신항이 미국산 축산물 등 신선 식품의 주요 수입 항만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조성

市·해수청·중구·동구 'MOU'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시, 중구, 동구 등과 함께 인천 중구 북성포구 일원에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최근 맺었다고 5일 밝혔다.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사업은 193억 8천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17년 12월까지 185m 길이의 호안을 쌓고 77만㎡를 매립하는 사업이다.

인천해수청은 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시, 중구, 동구 등 지자체는 사업과 관련한 보상·민원 등을 해결할 예정이다

준설토가 투기될 예정지는 만석·북성·화수 부두 등이 위치한 십자굴 내측으로 장기적인 퇴적으로 인해 악취 등의 민원이 있던 장소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준설토 투기장 공사가 완료되면 어시장 기능이 상실된 북성포구의 재생과 인천지역 항만 이용자의 편의제공 등 어시장 기능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손안의 뉴스친구 앱시리즈
경인일보 '모바일 K'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5-303호(2015.2.11) [21335]

암보험 나이 때문에 가입 어려운

61~80세

Cigna. 라이나생명

61~80세에 더 절실한 암보험
이제 라이나 (무)실버암보험(갱신형)으로 대비하세요

61세~8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위암/폐암/대장암 같은 각종 일반암은 물론, 백혈병/뇌암/골수암도 빠짐없이 보장
요즘 빈발하는 전립선암/갑상선암/유방암/기타 피부암도 보장
*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이며, 가입 2년이내 지급 사유 발생시 50%보장
*일반암 1,000만원, 유방암/전립선암 각 200만원,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각 1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노년에 더 위험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도 보장 가능!(특약가입 시, 최초 1회 한)

*보험료예시표

구분	남자	여자
61세	26,150원	16,850원
65세	33,350원	18,950원
70세	41,850원	23,250원

*기준 : 가입금액 주계약 500만원, 전기간월납, 10년만기, 갱신형

*해지환급금예시표

구분	남자(65세 기준)		
경과기간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400,200원	28,120원	7.0%
3년	1,200,600원	248,236원	20.7%
5년	2,001,000원	294,883원	14.7%
10년	4,002,000원	0원	0.0%

*기준 : 가입금액 주계약 500만원, 전기간월납, 10년만기, 갱신형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24시간 무료 상담 및 문의 080-220-000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전기간 월납 *갱신시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본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피보험자에게 "당뇨병,고혈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거절되지는 않으나,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 보험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악인 교부 및 설명 의무 불이행, 청약서에 자필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을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 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입주사 확대·성장 가속 '의약산업 메카=송도'

송도가 '바이오 의약산업 메카'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송도 4·5공구 92만5천762㎡ 면적의 '송도 바이오프론트'는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바이오 관련 포럼 개최 등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각 입주기관들의 성장·협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지난 1일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열린 증권 애널리스트 대상의 삼성바이오로직스·바이오에피스 회사설명회.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식품의약품 안전처 주최 '2015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년초 '세계 최대' 2공장 가동

'코스닥 시총1위' 셀트리온 시장개척·신약개발도

글로벌기업 올림푸스·동아쏘시오그룹 잇단 진출

수십여곳 연구·제조 업체와 대학 '네트워크' 구축

'바이오프론트' 꼼꼼한 밑그림

송도국제도시 내 입주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년 1분기 세계 최대 수준인 15만ℓ 규모 2공장 가동을 시작한다. 같은 규모의 3공장은 올해 착공 목표로 검토 중이며, 2020년까지 4공장을 추가로 건설해 40만ℓ 이상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생산능력·매출·이익 규모에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송도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내년 '엔브렐' 시밀러 제품의 유럽·한국 출시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자가면역질환치료제, 항암제, 당뇨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6개 제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자가면역치료제로는 한국과 유럽에서 시판허가 심사 중인 '엔브렐'과 '레미케이드', 임상 3상 막바지 단계에 있는 '휴미라'가 있다. 항암제로는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허셉틴', 임상 1상인 '아바스틴'이 있고, 당뇨병 치료제인 '란투스'는 임상 3상 마무리 단계로, 곧 시판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 중인 6개 바이오시밀러 오리지널 제품은 각각 연간 매출이 60억~130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약품 10위 안에 드는 제품이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15년 2월 '레미케이드'의 EU 특허 만료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주요 제품의 특허 만료가 연이어 예정돼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의 성장도 계속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3월 다음카카오를 제치고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렘시마'가 연말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제품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셀트리온은 남미시장 등 공략에도 나섰고, 차세대 파이프라인 신약 제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내 바이오 기업 입주도 계속되고 있다. 송도에는 동아쏘시오그룹 등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아지노모도제넥신(세포배양배지),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백신), 찰스리버래보래토리즈(전임상서비스) 등 연구·개발, 제조, 바이오 서비스, 판매까지 바이오 산업 전 분야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메디컬 기업인 올림푸스가 송도에 의료 트레이닝센터 설립을 결정하기도 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소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가 송도에 입주하면서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겐트대학교, 가천대학교, 연세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와 유타-인하 DDS 연구소, 제이씨비 연구소 등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련 기업 등과 지난해 산·학·연 협약을 체결한 뒤 학술·기술·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 분야 제조기업 7곳, 연구소 11곳, 관련학과 6곳, 스마트밸리 바이오 관련기업 약 40곳 등이 바이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송도에 이 같은 바이오프론트 구축은 세계 바이오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포럼 유치로 이어졌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송도컨벤시아에서 세계 각국 바이오의약품 전문가들이 모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 '2015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가 개최되면서 바이오프론트 송도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앞으로도 송도 바이오프론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강소 제조시설을 유치해 단지 내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연구개발·서비스 시설 유치로 산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지원, 바이오 분석 인프라·네트워크 확충, 바이오분야 국제행사 참여,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실시 등도 추진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가 국내외 바이오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은 '송도 바이오프론트'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며 "인천경제청은 앞으로도 바이오 입주 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기관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 행정지원, 인프라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필 제111012-중-24075호
발기부전 약물치료와 보형물삽입수술
원터치 자동 주입기
발기부전의 약물치료-고개숙인 남성들에 희소식
간편한 휴대성!
발기지속 효과!
만족스런 부부관계!
원터치 자동주입기는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1.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성기능 장애
2. 노인성 발기장애 및 당뇨등의 신체이상에 의한 발기력 감퇴
3. 약물성, 가벼운혈관성, 가벼운 신경손상 신경질환에 의한 발기장애
4. 원인 불명의 발기장애
※ 원터치 자동주입기를 이용한 약물주입 요법은 섬유화 및 발기지속의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의 진료후 사용하는것이 좋다.
보형물 삽입 수술
남성의 성기능 장애 중 심각한 것이 중증 발기부전이다. 중증 발기부전은 먹는 약이나 주사로도 발기가 되지 않는 경우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이다.
굴곡형
펌프형
수술받는 대상
●약물로 발기부전 치료가 안되는 경우
●다른치료에는 반응하지 않는 동맥성, 정맥성 발기부전으로 진단된 경우
●외상이나 수술, 암 치료후 발기부전이 온 경우 시술후 기계고장 및 염증이나 알러지 반응으로 인하여 2%이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의사의 상담과 수술이 필수!
코넬비뇨기과의원 032-423-8270
(인천 롯데백화점 뒤)

지붕명가 제일지붕공사
NAVER 검색창에 지붕명가 를 쳐보세요!
제일 건축 지붕개량 전문 회사
지붕명가는 포스코 칼라강판 100% 슬라브공사 전문 기업
25년 현장 시공 노하우를 가진 업계최고의 리모델링 전문회사입니다.
기존 슬라브집 지붕을 개량하면 → 겨울은 따뜻! 여름은 시원! 평생 방수·누수 완전해결됨!
☑ 빌딩/아파트/빌라데스리/주택 및 슬라브집/학교/공장/관공서/상가/창고/돈축사 외
☑ 공장 직영으로 시공하여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초저가 비용으로 시공 가능)
전화주시면 내,집처럼 공사하겠습니다.
무료전화 080-457-8282
경인지역 032-473-1004
지붕개량 ★특허★ 출원
※공사금액 전액 장기분할가능

사람들은 독자여러분의 알림마당입니다.
경조사 모임등의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이메일 people@kyeongin.com ♠전화 (031)2315 372 ♠팩스 (031)2315 346
인천 ♠전화 (032)861 3201 ♠팩스 (032)861 3206

날아라 독도, 힘내라 대한민국

독도사랑회 한한국(좌측) 세계 평화작가와 한글사랑 독도사랑 협약 체결한 길종성 이사장과 정광태 독도홍보대사.

독도사랑회 – 한한국 평화작가 협약

"지도로 한글과 독도 함께 알리는 기회"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이사장· 길종성)는 광복70주년을 맞아 독도홍보관에서 평화작가 한한국 교수와 '한글사랑 독도사랑'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한 교수는 'DOKDO, KOREA(독도 코리아)' 도자기와 '희망 대한민국' 지도를 독도홍보관에 기증했다.

DOKDO, KOREA는 가로 6m, 높이 250cm 크기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입증하는 역사적인 문헌을 기록하였으며, 독도는 대한민국 땅임을 서명날인 한다는 뜻에서 태극 모양에 약 7만 번 손으로 직인을 찍어 태극의 정신을 살린 작품이다.

협약식을 주선한 대한민국 독도홍보대사 정광태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독도단체와 최고의 세계평화지도 작가와의 만남은 민족 정서가 가득한 한글과 독도를 함께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두 단체 간 협약을 축하했다.

한편 한교수가 그린 한글세계평화지도는 UN본부 22개국에 소장돼 있다. 한 교수는 "세계평화지도를 통하여 독도와 함께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글사랑 독도사랑을 적극 홍보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했고, 길 이사장은 "세계 평화작가와 함께 나라 사랑을 실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군포시, 市 대표 독서광 3가족 표창

대한민국 책의 도시 군포시가 2015년에 도시를 대표하는 독서광이자 도서관 애호가로 손꼽힐만한 가족들을 선정해 표창했다.

군포시 중앙도서관은 최근 가족 모두가 공공도서관 회원 등록을 하고, 도서대출 실적이 높으면서도 연체 기록이 없어 다른 이용자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강혜자, 장혜정, 이지숙씨 3가족을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책 읽는 가족' 기념 현판을 선물했다.

조영환 중앙도서관장은 "이번에 책읽는 가족으로 선정된 가족은 도서관을 이용하며 책 읽는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해 감사의 의미로 표창했다"며 "책 읽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책 읽는 가족' 표창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한국도서관협회와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협력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포/윤덕흥기자 ydhr@kyeongin.com

양평교육지원청, 유치원 교원 연수

양평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관내 공사립 유치원 교원 3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학년도 유치원 교원 능력개발평가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진단을 통해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동참취지로 진행 , 교사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 및 성격, 추진배경 및 방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준비, 실행, 결과 분석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준비 단계에서는 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방법을, 실행 단계에서는 자기평가, 동료 교원평가, 학부모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평/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포천署 '메르스 혈액수급' 단체 헌혈

포천경찰서(서장·김충환) 직원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혈액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3일 포천경찰서 소속 112타격대 대원들이 단체로 헌혈했다. 이날 경찰서 정문에 대기한 헌혈차에는 종일 대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비교통과장 송학철 경감은 "어려울 때일수록 모두가 합심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며 "나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는 생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포천경찰서는 112타격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전체 부서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할 예정이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벌써 6번째 '삼성전자 희망하우스'

여주에 미니도서관 오픈·책 기부 도내 아동센터 시설개선사업 지원

삼성전자는 4일 여주시에 위치한 '주양 지역아동센터'에서 '희망하우스 6호'미니도서관 오픈 행사를 가졌다.

'희망하우스'는 삼성전자가 펼치는 경기도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각 센터별 1천만원의 비용을 지원해 아동들이 더 쾌적한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돕고 있다.

여섯 번째 희망하우스로 선정된 '주양 지역아동센터'는 독서 학습공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의 공사를 거쳐 미니도서관을 완성했으며 삼성전자는 아동들을 위한 신규도서 150권도 기부했다.

삼성전자는 경기도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과 아동정서발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경기도와 '삼성 희망드림(Dream)' 협약을 맺고 사업비 8억5천만원을 전달했으며 올 연말까지 희망하우스 20개소 완성을 목표로 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롯데마트–오산상의, 경제활성화 '맞손'

롯데마트가 오산상공회의소와 함께 오산시의 농산물 생산 단체 및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지난 3일 오산상공회의소 4층 회의실에서 남창희 롯데마트 마케팅본부장을 비롯해 이헌방 오산상공회의소 회장, 지역 경제인 및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시 지역 경제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산시 소재의 우수 농산물 생산 단체와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열린 것으로 오산상공회의소는 농산물 생산 단체 및 중소기업의 발굴 역할을 담당하고 롯데마트는 이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남창희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오산시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롯데마트도 오산시 경제 발전에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성남시, 故안수산여사 美장례식 조문단

성남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녀 고 안수산 여사 장례식에 조문단을 파견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5일 밝혔다.

안수산 여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에 입대해 한인 여성 최초로 해군 장교로 복무했으며 안창호 선생의 자료들을 기증하는 등 독립기념 사업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성남시는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LA포레스트 론 자유의 전당에서 거행된 장례식에 참석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추모 서한을 낭독하고 고인에 대한 존경과 애도의 뜻을 전했다.

서한은 "만남은 짧았지만 여사님의 생을 통해 보여준 가르침은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며 "이역만리 타향에서도 '한국인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선친의 유훈을 간직하고 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여사님의 자랑스러운 삶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례식은 안 여사의 유족과 지인, 재미한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 여사는 지난달 24일 자택에서 영면했다. 슬하에는 아들 필립 커디와 딸 크리스틴 커디를 뒀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siggie@kyeongin.com

교직원공제회, 지속가능금융상 수상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이규택)가 제9회 국가 지속가능경영대상 지속가능금융상을 수상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저금리 시대에 지속적인 이익창출을 위해 자산운용 조직을 국내·해외·대체 등 투자자산군별로 개편하고 자산운용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수정해 자산배분과 리스크관리 등 자산운용체계를 선진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 시장금리와 연동하는 급여율 조정체계를 마련해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장기 재정추계모형을 구축해 미래의 자산변동을 예측하고 선제적인 자산운용전략 수립이 가능해 졌다.

이규택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회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가평로타리클럽 38대 장석윤 회장 취임

가평 로타리클럽은 최근 가평읍 현대컨벤션웨딩홀에서 국제로타리클럽 가입 승인 36주년 기념식 및 제37대 신기만 회장, 38대 장석윤 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국제로타리 3600지구 정창길 총재, 정만화 차기총재, 조중윤 군의회 의장, 군·도의회 의원, 임의석 농협지부장, 김석구 농협조합장, 조규용 축협조합장, 장기명 산림조합장, 제갈태룡 가평중 교장, 각급 기관단체장, 로타리안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장석윤 취임 회장은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지속해서 봉사활동을 전개 할 것"이라며 "가평클럽 회원과 함께 봉사에 앞장서는 가평클럽을 실현하기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KT 수도권강남본부 '이주여성 여가프로'

KT수도권강남고객본부(본부장·김재현)는 (사)정다우리와 함께 지난 4일 군포 이주민센터에서 이주민 여성들의 여가 생활을 위한 '리본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김명묵 리본공예 강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진 이번 프로그램은, 이주민 여성들이 자녀와 여가를 보내면서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베트남에서 온 서수빈(32)씨는 "서툰 솜씨지만 딸과 함께 리본을 만들고 딸의 머리에 리본을 달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자리 옮겼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 강의순 △ 감사관실 이판열 △법인납세과 조갑신 △ 국제거래조사과 권효직 △ 조사2국 조사2과 전병두 △ 조사4국 조사1과 안수아 △ 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최영호 △ 북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종길 △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양희 △ 남인천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윤재원 △ 동안양세무서 조사과장 허오영 △ 동수원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필규 △ 성남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양순석 △ 분당세무서 조사과장 정성우 △ 평택세무서 재산세과장 정민기 △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범식 ◇ **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 △ 신광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양재준 △ 동고양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재호

용인시 ◇**4급** △수지구청장 이태용(승진) △행정문화국장 이현수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처인구보건소장 유은경 △기흥구보건소장 이성순 △수지구보건소장 윤주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도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순 △평생교육원장 김남숙 △기흥구청장 유봉석 ◇**5급** △비서실장 이동무 △징수과장 민순기

광주시 ◇**4급** △도시주택국장 양정석 △복지교육국장 정신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용원 ◇**5급**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 △세정과장 한영흠 △복지정책과장 박경원 △기업지원과장 이용태 △도시개발과장 이 청 △수도과장 조도한 △곤지암읍장 이상권 △도척면장 남기숭 △남종면장 남기삼 △희망나눔과장 임희동 △농정과장 이종수 △자원관리과장 이강건 △식품위생과장 이영희 △주택과장 신명호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낙윤

이천시 ◇**4급 승진** △도시개발 사업단장 송광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4급 전보**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5급 전보**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세무과장 이대성 △회계과장 한영옥 △평생학습과장 엄기화 △보건위생과장 박재우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마장면장 이길수 △대월면장 김영배 △설성면장 이용연 △창전동장 심규원 △중리동장 이현숙 △농정과장 조명철 △증포동장 정명교 △건축과장 김영준 ◇**5급 직무대리(승진)**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 △보건 사업과장 김옥분

Lotto <제657회>

1등 당첨번호	10, 14, 19, 39, 40, 43
2등 보너스 숫자	23

등위	당첨번호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694,762,792
2등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48,887,389
3등	5개 숫자 일치	1,627,494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추첨일:2015년 7월 4일

‘인천시 깃발 휘날리며’ 인간한계 도전

‘철인’ 공무원 류윤기 경제청 팀장

총 622㎞ 국토종단 울트라마라톤 참가
배낭에 기 단채 잠 안자고 7일간 달려야
완주땐 국내 3대 대회 그랜드슬램 달성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 류윤기 씨가 ‘대한민국 종단 울트라마라톤대회’에 참가, 인천시 깃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류은기씨 제공

인천시 소속 공무원이 국토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총 622㎞,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화제다.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 용유무의계획팀장 류윤기(51)씨는 5일 국토 최남단 해남 땅끝마을에서 최북단 강원도 고성까지 622㎞를 무박7일 동안 달려야 하는 ‘2015 대한민국종단 622km’ 울트라마라톤대회에 참가, 첫날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오전 6시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출발한 류윤기씨는 오전 11시 37분, 제1구간(50㎞·전남 강진)을 참가 선수 111명 가운데 7번째로 통과했다. 류씨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제2구간(100㎞·전북 남원) 종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 이번 대회 결승점은 강원 고성 비무장지대(DMZ) 남북출입국관리사무소다. 류씨는 하루 100㎞씩 7일 동안 전북 정읍, 경북 문경, 대전광역시, 충북 충주, 강원 원주 등을 거쳐 총 622㎞를 달린다.

울트라마라톤대회는 구간마다 제한시간 내에 통과해야 하는 ‘컷 오프’(Cut off)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간 종점에는 선수들이 숙식할 수 있는 장소가 있지만, 대회 규칙상 제한시간 내에만 이용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먹거나 쪽잠이라도 자기 위해서는 제한시간보다 빨리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극한 체력을 요구하는 운동 경기이다.

류윤기씨의 울트라마라톤 도전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2년 7월 부산에서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538㎞를 뛰면서 인천아시안게임 홍보 깃발을 들었다. 지난 2006년에는 중국에서 1주일간 열린 고비사막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300㎞가량을 달렸다. 중국대회 당시에도 류씨는 인천아시안게임 유치 홍보를 펼쳤다. 울트라마라톤대회만 10차례 이상 참가한 베테랑이다. 류씨는 이번 대회에서도 역시 배낭에 단 인천시 깃발을 휘날리며 뛰고 있다고 대회 관계자는 전했다.

류씨가 이번 대회를 무사히 완주한다면 오는 11일 자정께 150여 시간을 달려 고성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하게 된다. 이번 대회를 완주할 경우 류씨는 한반도 횡단 311㎞(강화~강릉) 대회와 대한민국 종단 538㎞(부산~임진각) 대회 등 국내 3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뛰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지법 청년사법참여단 3기 발족

인천지방법원(법원장·김동오)은 지난 3일 오전 법원 8층 소회의실에서 청년사법참여단 3기 발족식을 개최했다.

인천지역 대학생 17명으로 구성된 청년사법참여단은 2달간 형사·민사·가사재판 방청,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재판 및 판결문 모니터링 등 다양한 사법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김동오 법원장은 “법조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사법참여단처럼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며 “이번 활동이 장차 큰 포부를 펼쳐나갈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과정 21명 수료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센터장·조성혜)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2015 인천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 양성과정’을 진행, 21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지역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과 성(性)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조성혜 센터장은 “졸업과 동시에 사회인이 되는 특성화고 예비 취업생들의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말라붙은 대지·목타는 주민… 도움 손길 ‘방울방울’

서인천농협, 강화남부농협에 500만원

서인천농협이 지난 2일 자매농협인 인천강화남부농협에 가뭄 재해 지원비 500만원을 전달했다.

정혁근 서인천농협 조합장은 “장기 가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매농협 농민들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성금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고석현 강화남부농협 조합장은 “위기에 처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석진기자 psj06@kyeongin.com

한적 인천지사, 수중펌프 200대 전달

대한적십자사 인천시지사(회장·황규철)는 3일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군에 수중펌프 200대를 전달했다. 이 수중펌프는 서울시로부터 기부금 5천만원을 지원받아 마련됐다. 강화군은 급수 차량만으로는 가뭄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비가 내려 물이 고이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중펌프를 인천적십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중펌프는 강화지역 13곳 면사무소에 보관되며 필요한 농가에는 대여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K-water, 서해5도 병물 6천개 지원

K-water 경인아라뱃길본부(본부장·윤보훈)와 서해아라뱃길정책추진단(단장·허선규)은 극심한 가뭄으로 마실 물도 모자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에게 K-water가 생산한 병물을 지원한다. K-water 경인아라뱃길본부 등은 지난 3일 K-water 병물 6천 병(500㎖)을 아라뱃길 경인항을 통해 백령도로 운송했으며, 이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지에도 병물이 확보 되는 대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

중부소방서 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

인천중부소방서(서장·김문원)는 지난 3일 영흥면 십리포해수욕장에서 소방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가졌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232명(소방 40, 의용소방대 122, 옹진군 안전관리요원 70)으로 구성됐으며 십리포· 장경리· 서포리· 장골 해수욕장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내 주요 해수욕장 4개소에 고정 배치돼 14개소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유동순찰 실시, 해변순찰과 익수자 인명 구조 등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

중부해양경비본부 ‘해병대 감사패’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회전익 항공대가 해병대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에 따른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중부해경에 따르면 중부해경 회전익 항공대는 지난 2010년 이후 서북도서 응급환자 200여명을 인천소재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병대 6여단장은 지난 3일 인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중부해경 회전익항공단을 방문, 감사패를 전달했다. 중부해경 관계자는 “도서지역의 장병을 비롯 주민들을 위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12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 참성단 |

북한의 백년만의 가뭄

남한 가뭄도 심하지만, 북한은 더하다. 올해 북한 가뭄은 백년만이라고 했다. 중국 CCTV도 4일 '조선이 백년만의 큰 가뭄을 만났다(朝鮮遭遇 百年不遇特大干旱)'고 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백년가뭄 같은 그런 가뭄이다. 하천과 저수지가 마르고 약 40%의 논바닥이 말라붙었는가 하면 수력발전량도 줄였다는 게 엊그제까지 평양에 체재했던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 담당자의 증언이다. 그럼 식량 사정은 어떨까.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의 자이드(Zeid) 고등판무관은 지난달 27일 북한이 심각한 기아에 직면했다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다'고 CNN이 보도했고 세계식량계획 간부는 "1990년대에도 50만명이 굶어 죽었지만, 현재 북한 어린이의 3분의 1이 영양실조"라고 전했다. 지독한 가뭄과 굶주림과 영양실조, 그게 오늘의 북한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한국과 중국의 가뭄 극복 협조 제의엔 무반응이더니 엉뚱한 이란에 도움을 청했다. 핵 보유 동질감과 무기거래 등으로 다진 친밀감을 믿었던 건가.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의 핵 폐기 마지막 수순 중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핵 포기는 절대로 없다고 했고 유엔인권사무소 서울 개설을 맹비난, 험담을 퍼붓는가 하면 대학생들의 순수한 스포츠 제전인 광주 유니버시아드에도 불참했다. 아르헨티나 유력 일간지 '라 나시온(La Nacion)'이 지난 1월 12일자에 '빛나는 한국, 어둠의 북한'이라는 이례적인 사설을 썼다. 미 항공우주국(NASA) 관측위성이 작년 성탄절 전야에 촬영한 불야성의 남한과 암흑의 북한이 극명히 대조되는 한반도 사진과 함께 쓴 장문의 사설에서 'GDP의 30%를 핵과 생화학무기 증강에 쏟아붓는 북한엔 총만 있지 버터는 없다'고 했다.

생지옥(living hell)을 중국에선 '살아 있는 지옥(活地獄)'이라고 한다. 독일 출생 프랑스 오페라 작곡가 오펜바흐(Offenbach)의 대표적인 오페라에 '천국과 지옥'이 있지만, 한반도 남북이야말로 천국과 지옥의 현저한 대비다. 그리스신화의 지옥엔 '히드라(Hydra)'라는 머리 50개 달린 뱀이 있지만 북한에도 그런 괴물이 있는 건 아닐 테고 찬란한 남측 불빛이 북녘까지 밝힐 순 없을까.

오동환 객원논설위원

※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경인일보 경인일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회장 이길여 | 발행·편집·인쇄인 송광석 | 편집국장 장철순

본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442-702 전화 031)2315-114 팩스 232-1231, 223-2662 편집부 2315-339 정치부 2315-350 경제부 2315-351 사회부 2315-360 지역사회부 2315-370 사진부 2315-316 문화체육부 2315-380 교열부 2315-340 디지털뉴스부 2315-375

인천본사 인천시 남구 학익1동 684-1 ㊞402-041 전화 032)861-3200 팩스 861-3206,3209 정치부 861-3200 경제부 861-3201 사회문체부 861-3202 사진부 861-3203

서울본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4 삼보호정빌딩 801호 ㊞150-608 전화 02)780-0456 팩스 780-0356 취재부 780-0458 광고부 780-0457

광고문의 수원 031)2315-252~9 인천 032)861-3204 서울 02)780-0456
구독료 월 10,000원 / 1부 500원 구독신청 031)2315-503

| 월요논단 |

조선 붕당정치에 비춰본 오늘날 여야정치 실루엣

홍 문 기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선조때 훈구파·사림파 갈등 심화
밥그릇 싸움에 당쟁으로 변질
지금의 야당 '친노·비노' 다툼
여당의 친박·비박·원박…
다양한 '~박'그룹 분화를 보니
사색당파 조선시대같아 안타까워

언론에서는 연일 여야 수뇌부 갈등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여야의 정치적 권력투쟁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조선을 멸망으로 이끈 사색당파 붕당정치를 생각하게 된다. 생각과 뜻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정치적 의견을 나타내는 붕당정치는 의견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정책 대결을 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적 권력 분립에서 강조되는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을 위한 비교적 긍정적 정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 선조에 의해 도입된 붕당정치는 당쟁의 상징이 됐고, 조선이라는 국가 몰락의 근원으로 평가된다. 무엇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붕당정치를 정권 몰락의 근원으로 전락시켰을까?

우선, 조선의 붕당정치가 실패한 이유는 붕당정치가 권력의 민주적/합리적 운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관료들의 밥그릇 싸움을 위해 활용됐기 때문이다. 당시 집권층이었던 훈구파의 비대해진 권력에 불안해하던 선조는 재야 지식인들을 대거 기용해 서로 경쟁시켰다. 이 과정에서 재야 지식인 집단인 사림파의 관료화로 전체 양반/관료의 수가 늘었고 이들에게 지급할 녹봉/토지 수급의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관직의 세습 문제까지 겹치면서 훈구파와 사림파 간의 갈등이 심화 됐다. 결국 붕당정치가 당쟁으로 변질 된 가장 큰 이유는 밥그릇 싸움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벌어진 야당의 친노와 비노 간 갈등과 여당의 친박과 비박 간의 이전투구가 공천이라는 여야 붕당들의 밥그릇 싸움 때문인 것 같아 걱정된다.

둘째, 선조의 붕당정치가 당쟁으로 전락한 이유는 요직에 대한 자리다툼 때문이다. 조선시대 당쟁은 문반 관료의 인사권을 쥔 이조 전랑 자리를 둘러싸고 훈구파와 사림파의 갈등에서 시작됐다. 이조전랑직은 종 5품·6품의 낮은 자리이지만, 삼사(三司)의 하나인 홍문관(옥당) 출신의 엘리트 관료가 관례로 임명되는 자리로 삼사의 공론을 수렴하여 대신들을 견제하고, 후임자를 스스로 천거하며, 이 자리를 거치면 재상에 오르는 요직이었다. 따라서 전랑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권력 경쟁의 핵심 과제였다. 지금 야당이 차기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당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계파 간 갈등을 빚는 것과 동인과 서인이 이조전랑직을 놓고 다투는 것이 흡사하다는 사실이 기막히다.

셋째, 조선시대 붕당정치가 왜곡된 이유는 붕당이 사색당파로 세분화 되면서 당쟁의 정도가 더욱 심화 됐기 때문이다. 초기의 붕당정치는 훈구파와 사림파 상호 간 정책 대결이었지만 당쟁 과정에서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고 그 과정에서 다시 이합집산이 이루어졌고 집단 내 골품을 따지며 갈등이 심화됐다. 그런데 최근 여당에서는 친박, 비박 논란에 이어 원박, 범박, 심지어 짤박까지 다양한 '~박' 그룹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박으로 불리는 국회의원이 사무총장 자리에서 멀어지자 10여명만이 진짜 친박이라는 배타심이 문제라며 친박 핵심들의 배타성을 비판했다. 각종 '~박'의 집단으로 분화되는 여당을 보니 사색당파로 갈렸던 조선시대가 연상돼 안타깝다.

일본 식민사관론자들은 한국인들이 정치적으로 서로 싸우기 좋아하는 민족성을 가져 망국의 길을 걷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한민족 당파성론은 식민주의적 역사 해석과 함께 국권탈취를 합리화/정당화하고 한국인에게 패배주의 의식을 심어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악용됐다. 이 때문에 붕당정치를 왜곡시킨 밥그릇 싸움, 요직 다툼, 그룹 내 골품제 논란 등은 오늘날 정치인들이 복철지계(覆轍之戒)의 금과옥조로 삼아야 한다. 실제로 구한말 정치인들이 이를 잊었을 때, 광복이후 정치인들이 이를 잊었을 때 역사적으로 외적이 침입하거나 전쟁이 일어났고 국민들은 초근목피로 연명했다. 이제라도 오늘날 정치인들은 이 역사적 교훈에 주목하기 바란다.

| 오늘의 창 |

내수시장 확대… '호갱'을 고객으로

김 영 준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월을 맞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내수 시장 확대를 꾀한다.

지난달부터 내수 판매가 일제히 증가세로 돌아선 국산차 업체들은 30만~100만원 할인, 저금리 할부, 휴가비·유류비 지원, 아웃도어 용품 제공 등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프로모션'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완성차 업체에선 저마다 장점을 내세워 매출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달에 새롭게 선을 보이는 신형 쏘나타(현대)와 K5(기아), 스파크(한국GM) 등도 기본 편의사양과 성능은 끌어올렸으면서도 이전 모델에 비해 비슷하거나 높게 책정되지 않은 합리적 가격으로 소비자와 만난다.

휴가철을 맞아 펼치는 공격적 마케팅과 함께 새롭게 내놓을 차에서도 합리적 가격을 고수하려는 국산차 업계의 모습에서 절박함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수입차는 올해 초 국내 점유율 18%를 찍었으며, 올해 안으로 점유율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부턴가 국내 소비자들은 '고객' 대신 '호갱'이라는 말로 지칭됐다. 호갱은 호구와 고객을 합친 말로, 어수룩해 속이기 쉬운 손님을 뜻한다. 같은 제품인데도 해외보다 비싸게 사야 하는 현실을 비꼬는 말이기도 하다.

자동차를 비롯해 전자제품 등 몇몇 제조사들이 국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상황과 '국내 제품을 써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애국주의가 더해져 확립된 불합리한 현실이었다. 비싸야지만 명품으로 생각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이 같은 현실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에 힘입어 최근 들어 호갱들은 불합리한 현실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보를 공유하면서 책정된 가격 대비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한다. 전 세계 제품을 통틀어 단순히 고가와 저가 비교 뿐만 아니라 어떤 요인이 더해지고 빠진 부분을 적극적으로 따지는 것이다. 수입차의 국내 점유율 확대도 이 같은 부분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다.

국산차 업체를 비롯해 제조업체들과 유통업체들이 국내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선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서야 한다. 소비자를 호갱으로 볼 경우 내수 시장 확대는 요원하다.

| 시인의 연인 |

근황

일곱 번째 목뼈 속에서
흰 구름이 말을 한다
습관적으로
속으로만 짜던 무늬
내 몸을 입고 나온 구름이
필름에 앉아 있다
긴 시간을
오래오래
함께 갈 구름인데
뭉개진 흰 구름에
검은 비가 내린다
아프니?
오, 제발

박미산(1954~)

사랑을 엑스레이처럼 투사하여 들여다본다. 그 사랑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 한 장 필름에 내면이 현상된다. 이 시는 사랑을 지탱하던 척추가 세월의 녹이 슬어가는 것을 인화해 준다. 당신을 위해 "속으로만 짜던 무늬"가 구름 사이로 펼쳐진다. 그런데 당신을 태우고 온, 그리고 '함께 갈 구름'은 '긴 시간 뭉개진 흰 구름'으로 너무 닳아있다. 여기서 내리는 '검은 비'는 '고통의 수혁'으로서 당신이 준 오래된 증상으로 판독된다.

권성훈 (시인·문학평론가)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전화 031)231-5370 | e메일 opinion@kyeongin.com

알레르기 비염 & 축농증

심의필번호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5-중-4670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수술 없이 다스린다"

은근히 무서운 고질병 -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계절이 바뀌면 콧물이 줄줄 흐르고 거기에 코 막힘 증세까지 보인다. 처음에는 감기로 짐작되는 증상들... 그러나 그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다. 처음에는 감기인지 알레르기 비염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영부영하다 보면 어느 새 고질병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래서 감기가 나았는데도 재채기, 콧물, 코 막힘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알레르기 비염의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축농증의 진행도 한 눈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역시 감기가 나았는데도 콧물, 코 막힘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축농증의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어른도 자기가 알레르기 비염이나 축농증을 앓고 있는지 알기 어렵지만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더욱 그렇다. 이런 부분들은 어머니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서둘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축농증이 심해지면 두통, 집중력, 기억력 저하가 뒤따른다. 축농증은 책상 앞에서 고개를 숙일 때 거북함을 주기 때문에 아이가 책상 앞에 앉는 것을 힘들어 하게 된다.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병을 키우다가 나중에 문제가 커져서 병원에 갔다가 수술하라는 말을 듣게 되면 가슴부터 철렁 한다.

따라서 평소에 가족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한다. 먼저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감기가 잘 걸리거나 잘 낫지 않거나 나았는데도 감기 증상이 계속된다 싶으면 알레르기 비염이나 축농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계절이 바뀌면 발생하는 코막힘, 맑은 콧물, 발작적인 재채기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알레르기 비염. 부비동에 염증이 생겨 농이 쌓이는 축농증.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은근히 사람을 힘들게 한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 학습에도 지장이 많다. 수술하지 않고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자.

평강한의원(서초동) 02-566-1656 / www.dr-lee.co.kr
이환용 원장(한의학 박사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알레르기성 비염에 효험이 있는 한방치료 한약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의 문제를 치료할 때 환자들은 흔히 증상에만 치중한다. 한방에서는 오장 육부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코의 병이 생겼더라도 이것이 폐나 심장에 있으면 이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근본 치료라 본다. 따라서 콧병 치료의 처음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알레르기 비염이 일어나는 환경적 요인은 먼저 현대인의 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실내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 환기에 신경을 써 주지 않으면 집먼지나 진드기, 바퀴벌레 등으로 실내 공기가 오염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식생활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달걀, 생선, 콩, 귤, 토마토, 딸기, 아몬드 등도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한방 치료에서 주로 쓰이는 약재는 유근피. 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낫는다 하여 예로부터 민간에서 코나무로 불리던 약재이다. 이것을 물에 담그면 마치 콧물처럼 끈적끈적한 진이 흘러나온다. 이것이 고질적인 축농증을 낫게 하는 주성분이다. 느릅나무의 줄기 껍질보다는 뿌리 껍질에 약효가 많고 두꺼운 것일수록 효능이 크다. 유근피는 콧병 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하게 해주며 위장병에도 효과가 있고 그 외에 여러 염증에도 효과가 있다. 유근피는 우리 몸에서 병든 부분을 없애주고 새롭게 회복하게 하는 좋은 약재이다.

동의보감에도 콧병에 대한 처방이 나와 있다. 코나무 껍질에 특정 약재를 더하면 콧병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유근피는 코 질환에 효과적이지만 이 한 가지 약재만으로는 여러 가지 코 질환을 단기간에 완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살구씨, 목련꽃봉오리, 수세미 등을 더해서 만든 평강한의원의 한약을 활용할 경우 코나무 한 가지만으로 치료할 때보다 효력이 늘어난다.

코질환 방치하지 말고 꼭 한의사와 상담한 다음에 치료할 것

코에 이상을 느낄 때면 수시로 대추혈을 자극해 주는 것이 좋다. 심할 때에는 지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대추혈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1분 가량 따뜻한 바람을 쏘이고 2~3분 동안 쉬는 것을 4~5회 반복하면 된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 질환을 그냥 방치하거나 환자 스스로 진단, 처방하여 아무 약이나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작은 불편한 정도이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신경질적인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학습에 지장이 있음은 물론 성격 형성에도 문제가 있으니 꼭 한의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평강한의원(서초동)
02-566-1656
www.dr-lee.co.kr

| 특별기고 |

홍 승 표
경기관광공사 사장

비둘기 낭

포천 한탄강 자락에 비둘기 낭 이라는 작은 폭포가 있습니다. 한탄강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주상절리가 절경인 곳이지요. 비둘기 낭은 '괜찮아 사랑이야!' 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조인성과 공효진이 키스를 했던 곳입니다. 한탄강으로 이어지는 비둘기 낭 폭포는 에메랄드 빛깔의 영롱한 소(沼)로 뒤쪽의 동굴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고 있지요. 동굴을 뒤덮고 있는 천장과 주변의 바위들은 주상절리의 단편들로 군집 되어 현무암 지형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이고 매력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낭은 둥지를 뜻하는 순우리말이지요. 비둘기 낭은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함께 천연기념물 537호로 지정된 보석 같은 천연자원입니다.

드라마·영화촬영 명소… 주상절리 절경 '국보급'

주변에는 잘 만들어진 캠핑장이 있습니다. 비둘기 낭은 캠핑장과 인접해 있어 조금만 걸으면 잘 만들어진 전망대에서 바로 만나볼 수가 있지요. 지난해만 15만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비둘기 낭은 한탄강과 연결되어 있지요. 비둘기 낭과 연결된 한탄강의 현무암 주상절리의 절경은 가히 국보급입니다. 한탄강 8경으로도 손꼽히는 절경을 자랑하고 있지요. 주변 경관이 빼어나 추노와 선덕여왕 같은 드라마는 물론 비밀병기 활과 늑대소년 같은 영화를 촬영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둘기 낭을 중심으로 한 한탄강 일원은 산과 들과 물이 잘 어우러져 있어 도시민들의 힐링 장소로 더없이 좋은 곳이지요.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온 자연환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한탄강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화산이 폭발해서 생긴 강입니다. 포천을 흐르는 구간만 40km에 달하지요. 그런데 이곳에 한탄강 댐이 건설되면서 3개면에 걸쳐 660명의 수몰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비록 홍수지로 바뀌었지만 한탄강 자락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전통 장 담그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광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몰 이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일대를 새로운 관광 휴양지로 탈바꿈시키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탄강 일대 새로운 관광 휴양지로 개발 추진

모험심을 유발시키고 휴식공간으로도 가능한 스카이워크 형태의 별빛 전망대를 만들어 한탄강 자락과 협곡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한탄강 협곡의 암벽에는 인공빙벽을 만들어 빙상 트레킹과 연계된 겨울 관광 상품화한다지요. 기존의 산과 들, 나무와 풀 등을 활용해 친환경 모험놀이공간인 에코어드벤처 시설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비둘기 낭에서 중리 벌판으로 이동하면서 한탄강 협곡과 대규모 경관단지를 감상할 수 있는 짚와이어를 설치한다지요. 공중에서 한탄강 생태 경관을 순환 관람할 수 있는 캡슐 순환 형 무동력 하늘 자전거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댐건설 수몰이주민 소득창출·자립기반 조성

협곡으로 단절된 생태 경관지역과 야생화단지 오토캠핑장을 연결하는 흔들다리도 만든다지요. 협곡의 암벽을 배경으로 테마 레이저 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홍수터의 이주민 등 지역주민의 소득창출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수몰지역 주민협의체와 연계협력으로 지역주민을 채용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숙박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상품도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관광개발 사업이 지역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인 셈이지요. 이미 1천만㎡ 이상의 광활한 수몰지도 홍수조절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관광사업의 성공이 담보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요. 한탄강 자락 비둘기 낭 일대가 수도권을 넘어 국민적 관광 보석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박인하의 만화세상 | 야마자키 마리 '식사는 하셨어요? Buonappetito!', 애니북스, 2013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창작전공 교수

음식은 일상에서 나온다, 유쾌한 음식만화

나폴리탄 스파게티, 시칠리아 피자, 미네스트로네, 파니노가 나오는 음식만화다. 아니, 더 중요한 건 야마자키 마리의 만화다. 스스로 '유목민형 만화가'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작가는 14세에 독일과 프랑스를 여행했고 그때 알게 된 도예가 할아버지의 초청을 받아 17세에 이탈리아로 그림을 배우러 떠난다. 하지만 도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다시 만나지 못한다. 15년이 지난 뒤, 작가 대신 마르코 할아버지와 그 가족과 친하게 지냈던 어머니의 권유로 할아버지 딸네 집에 방문했다가 할아버지의 손자이자 14살 어린 이탈리아 남자와 결혼해 이집트, 시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살게 된다.

작가 야마자키 마리의 독특한 삶의 여정에서 먹고 사는 문제인 동시에 특정 지역에 대한 문화적 경험이며 때론 문화적 충돌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리와 음식이 일상과 밀착되어 존재한다. 만화는 작가가 유학과 결혼생활로 오래 머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거기에 일식이 첨가되고, 과거의 경험이 맞물리며 포르투갈이나 브라질 등의 에피소드가 추가된다. 초반 2개의 에피소드는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일본에서 가장 익숙한 나폴리탄 스파게티와 작가가 유학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항상 먹는 아마트리치아나 스파게티는 전혀 다른 레시피와 모양과 맛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대표 음식 피자도 시칠리아와 나폴리의 것이 전혀 다르게 생겼다.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접근은 이 만화만의 장점이 아니다.

3화부터는 더 노골적으로 일상을 소환한다. 작가가 유학 갔던 1990년대 초반은 일본이 버블경제의 절정기를 구가하던 시절. 멋지게 차려입은 여성들이 명품 쇼핑백을 들고 이탈리아를 활보한다. 그러나 작가는 늘 빈곤하다. 공교롭게 함께 살던 4명이 모두 무일푼이 되자, 작가는 거리에 나가 초상화를 그려 돈을 번다. 값싸고 배부르게 먹을 용도로 여러 채소를 사 2차 대전 때 먹었음직한 미네스트로네를 끓인다. "몸도 마음도 훈훈"해지자마자 전기세를 못 내 전기가 끊긴다. 네 명의 친구들은 맞은편 집의 불빛을 배경으로 미네스트로네를 먹는다. 일본식 바삭한 돈카츠를 먹기 위해 빵가루가 필요하다. 작가는 빵을 잘게 쪼개 햇볕에 말렸는데, 잠깐 쉬다 나와 보니 함께 사는 이탈리아 친구가 잘게 찢은 빵이 들어간 토스카식 샐러드 판자넬라를 만드는 데 사용해 버린 뒤였다. 유학 시절의 경험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시댁에서의 경험도 흥미롭다.

'식사는 하셨어요?'는 음식을 요리해 먹는 에피소드를 아주 흥미로운 작가의 독특한 일상에서 불러낸다. 요리와 음식은 그 자체로 고고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의 어느 기억과 맞물리며 의미를 얻는다. 그런데 작가가 보여주는 일상은 '우리 어머니의 손맛'과 같은 약간은 상투적인 수사를 피하고 가난뱅이 유학시절, 무지막지하게 먹어대는 이탈리아의 명절, 휴가를 떠났던 알프스산에서 조난 당했던 기억 등을 불러낸다. 일상에는 늘 음식이 있으니까. 이런 생생한 경험은 캐릭터의 능숙한 표정연기와 재치 넘치는 대사와 내레이션과 함께 유쾌하게 전개된다. 모두 17개의 에피소드가 들어있고, 소개한 음식의 레시피가 함께 수록되어있다.

[사설]

화성 테마파크 돌다리 두드리는 신중함을

지난 2일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제테마파크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부지공급 조건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의기투합한 것이다. 직접고용 1만여명과 경제적 파급효과 연 3조원의 사업재개를 알리는 공식 신호탄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7년 11월 경기도와 화성시, 수자원공사는 롯데자산개발 등 9개사로 구성된 USKR(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컨소시엄과 업무협약을 맺고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동쪽의 서울 여의도보다 큰 부지에 5년간 약 3조원을 투자, 세계최대의 종합관광단지를 건립해 2012년 오픈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에다 과도한 개발비 부담, 땅값문제 등으로 지연되다 2013년 9월 시행사인 롯데가 발을 빼면서 중지되었다.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스튜디오를 구경하기 위해 멀리 일본이나 말레이시아를 찾았던 국민들의 실망이 컸다. 세계적인 테마파크 도시로의 웅비를 꿈꾸던 화성시민들은 낭패했다. 화성국제테마파크 부활이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이 된 배경이다. 지난 4월 30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개정안' 국회통과로 재추진 동력을 얻었다. 입찰 대신 공모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의지대로 직접 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투자비용 경감과 수익성 제고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 및 인프라 지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에 최대한 협조할 자세다.

수자원공사는 한류 등의 문화콘텐츠를 갖추면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수가 2014년 현재 1천400만명에 이르는 등 매년 10%가량 증가하는 터에 인천공항에서 불과 40분 거리에 위치한 만큼 외국인전용 카지노까지 유치해서 일본 오사카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저팬을 능가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금년 내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번 좌절된 사업이 다시 빛을 발할지는 의문이다.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국민들의 해외관광수요 격증은 또 다른 복병이다. 개점휴업의 영어마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농축산물 금값 서민들 장보기 겁난다

세월호 사고에 이은 메르스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다 가뭄까지 겹쳐 농축산물 가격이 뛰고 있다. 서민들의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이어진 가뭄으로 가계생활과 밀접한 배추, 파, 무 등 농축산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통시장은 시장대로 메르스 여파로 인한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고 주부들은 주부들대로 장보기가 겁이 난다. 더구나 최근 교통요금까지 인상하는 악재가 겹쳐 서민들은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7월들어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우리 농산물 가격은 전월 대비 4.1%나 올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3년 2월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축산물 가격은 4.0% 올랐다. 특히 배추와 파 가격은 90.9%와 91.9%나 올라 거의 배나 뛰었다. 지속된 가뭄으로 작황이 좋지않은데다 산지에서 반입량이 크게 줄어든 때문이다.

양상추 가격도 35.7%나 올랐고 무 34.3%, 감자 29.3%, 생강 28.3% 등 채소 값이 수직 상승했다. 특히 신선 채소 가격은 21.2%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0.7%)에 비해 약 30배나 높은 가격이다. 이같은 농축산물 가격의 오름세는 늘어나는 가계부담을 부채질하고 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1천99조 시대에 와 있다. 작년 4분기 1천87조원 보다도 12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시한 폭탄인 셈이다. 이같은 가계부채 속에 우리네 밥상 주요 식품인 농축산물의 가격 인상은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늘어나는 부채를 갚기 위해 소비생활을 줄여야하는 판에 농산물 가격까지 오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까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이로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전세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져 세입자인 서민들의 살림은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때문에 서민들은 교통요금이나 농축산물 가격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이런데도 정치권은 입으로만 민생경제살리기를 외치면서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민생안정 대책이다.

경인일보 70 희망 큰 눈 큰 생각 큰 신문
신문 인터넷배너 전광판 뉴스비전
수원 031·231·5271 인천 032·861·3200

상속의 한정승인 공고

2015. 3. 5. 피상속인 망 김미나(710810-2*****, 최후주소: 광주시 곤지암읍 벌열미길 36-5, 106호)의 사망으로 상속인 김영식, 장가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며(2015느단574호) 2015. 6. 30일자로 수리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피상속인 망 김미나와 채권관계에 있는 분들은 공고 익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아래 연락처로 채권관계를 신고하여 주십시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이후 상속재산으로 변제받지 못합니다.

2015년 7월 6일

공 고 인 : 김 영 식, 장 가 자
주 소 : 제주시 애월읍 천덕로 57
송달장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503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상속의 한정승인 공고

2015. 1. 7. 피상속인 망 윤익표(600513-1*****, 최후주소: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69, 107동 103호(강산마을코오롱, 대성아파트))의 사망으로 상속인 최미영은 상속재산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며(2015느단513호) 2015. 6. 30일자로 수리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피상속인 망 윤익표와 채권관계에 있는 분들은 공고 익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아래 연락처로 채권관계를 신고하여 주십시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이후 상속재산으로 변제받지 못합니다.

2015년 7월 6일

공 고 인 : 최 미 영
주 소 : 의정부시 용민로 10, 211동 311호 (용현동, 주공아파트)

상속의 한정승인 공고

2015. 2. 9. 피상속인 망 이영철(610104-1*****, 최후주소: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43, 208동 1302호(정자동, 한솔마을))의 사망으로 상속인 이형섭은 상속재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며(2015느단476호) 2015. 6. 30일자로 수리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피상속인 망 이영철과 채권관계가 있는 분들은 공고 익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아래 연락처로 채권관계를 신고하여 주십시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이후 상속재산으로 변제받지 못합니다.

2015년 7월 6일

공 고 인 : 이 형 섭
주 소 : 11500 JOLLYVILLE RD. #3024, AUSTIN, TX 78759 U.S.A
송달장소 : 오산시 수청동 525-4, 301호

상속의 한정승인 공고

2015. 4. 21. 피상속인 망 이승숙(351008-2*****, 최후주소: 화성시 송산면 마산길 196-8)의 사망으로 상속인 최숙희, 최남희는 상속재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며(2015느단1293호) 2015. 6. 26일자로 수리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피상속인 망 이승숙과 채권관계가 있는 분들은 공고 익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아래 연락처로 채권관계를 신고하여 주십시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이후 상속재산으로 변제받지 못합니다.

2015년 7월 6일

공 고 인 : 최 숙 희, 최 남 희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84번길 30, 904동 1102호(이순연:010-6657-3358)

상속의 한정승인 공고

2015. 1. 25. 피상속인 망 김한성(680522-1*****, 최후주소: 하남시 감이남로 93(감이동))의 사망으로 상속인 박선형, 김경주, 김민채는 상속재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며(2015느단412호) 2015. 6. 30일자로 수리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피상속인 망 김한성과 채권관계가 있는 분들은 공고 익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아래 연락처로 채권관계를 신고하여 주십시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이후 상속재산으로 변제받지 못합니다.

2015년 7월 6일

공 고 인 : 박 선 형, 김 경 주, 김 민 채
주 소 :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27, 401동 1104호 (수서동, 삼익아파트)
송달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3길 15, 402호 (서초동, 정원빌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하겠으며, 개장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위 사업구간내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거나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산39-2번지 (총7기)
2. 개장사유 : 폐묘(고창묘) 정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산77번지(공동묘지 내)
6. 신고처 및 문의처 : 신고처 - 연안차씨 양은공파 종중대표 차재철(010-3895-5774)
7.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서 등)을 지참하여야 함.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도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7월 6일

위 공고인 : 연안차씨 양은공파 종중 대표 차 재 철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정463(2014고정699) 업무상배임
피 고 인 신 용 택

위 피고인은 업무상배임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5년 6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 태 우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2심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노55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3심 사건번호 대법원 2015도33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박근배

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형법 제325조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5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 태 우

화성향남2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 공고

1 공급대상자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분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 형태의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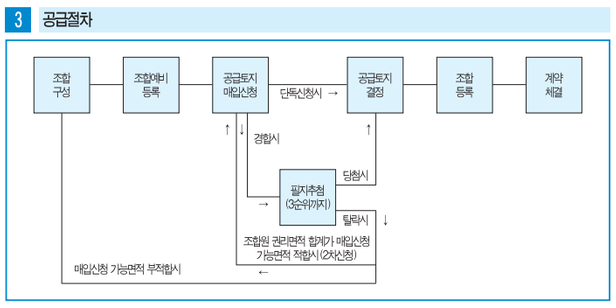
※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의 권리는 대상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조합을 통해 행사되므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라며, 조합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은 대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공급대상 생활대책용지

사업지구	필지수	공급용도	면적(㎡)	공급금액(천원)	대금납부조건	신청예약금
화성향남2	13	근린생활시설용지	731~2,845	1,272,000 ~ 4,978,800	3년분할(무이자)	없음

* 세부내역은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 매각공고의 공급토지상세목록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금납부방법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공급금액의 10%) 납부하고 3년간 매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 분할납부기간이 3년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이 되어 계약금 및 각 할부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공급절차



※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하되 동일 필지에 동일 순위 신청으로 경합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 결정 (신청은 회차별로 3순위까지 필지 선택 가능)

4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조합(예비)등록	매입신청 접수	추첨 및 결과발표	계약체결	장소
1차	2015년 8.24(월)~8.25(화) 10:00~16:00	2015년 9.1(화) 10:00~16:00	2015년 9.3(목) 15:00	2015년9.15(화) 10:00~16:00	LH 경기지역본부화성남양부사업단1층 판매부 (화성시 봉담읍 상리 34-50)
2차	2015년 9.22(화)~9.23(수) 10:00~16:00	2015년10.6(화) 10:00~16:00	2015년 10.13(화) 15:00	2015년10.27(화) 10:00~16:00	

※ 각 회차별로 조합구성원의 전체 권리면적의 합계가 신청대상토지 면적의 90%이상인 경우에만 매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2차 조합(예비)등록 : 1차 신청한 토지 미 당첨으로 2차 신청을 위해 조합원을 변경한 조합 + 2차에 신규 등록하는 조합
※ 회차별로 조합원의 권리면적의 합계가 매입신청 가능면적에 적합한 필지 중에서 3순위까지 필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매입신청 접수 결과 필지별, 순위별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
※ 공급대상자는 상기 일정에 맞춰 기한 내 조합예비등록, 매입신청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활대책용지의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① 본 공고문은 화성향남2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에 관한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으로 매입신청 전에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 공급토지 상세 목록, 토지이용계획도 및 위치도, 필지별 토지이용 장애사항 설명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지구단위계획 설명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각종 서식 등을 반드시 열람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② 매입신청, 계약체결, 토지대금의 납부 등 제반절차는 조합별의로만 가능합니다.
※ 기타 공급하신 사항은 LH 경기지역본부 화성시남부사업단 판매부(☎031-228-01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6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빠르고 안전한 콜밴
고객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짐엔콜
www.jimncall.co.kr 예/약/문/의
253-6666
신개념 운송서비스! 대리운전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시간대, 언제든지 OK!

두대회 연속 1호 금메달 조구함 달라진 무게감

4일 오후 광주시 서구 염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남자 유도 100kg이하급 결승전에서 한국의 조구함이 프랑스 클레멍 델베르트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유도 100kg이하급 첫 낭보… 왕기춘 은메달·박유진 동메달

양궁 기보배 신기록 이어 강채영 2위… '부상' 양학선 결국 포기

남자유도 조구함(23·용인대, 수원시청)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한국 첫 금메달을 따내는 등 경기·인천 선수단이 연일 낭보를 전하고 있다.

조구함은 메달 레이스가 시작된 지난 4일 광주 염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100kg이하급 결승에서 프랑스 클레멍 델베르트를 물리치고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2013년 러시아 카잔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우리나라 '1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또 여자 78kg이하급에선 박유진(22·용인대)이 동메달을 보탰다. 5일엔 남자 81kg이하급에서 왕기춘(양주시청)이 결승에 진출해 카산 칼무르자에브(러시아)에 패해 은메달을 추가했다.

양궁 리커브에선 강채영(경희대)이 4일 여자부 70m 라운드 예선전에서 679점으로 세계신기록을 세운 기보배(광주시청·686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여자 양궁 대표팀은 개인전 점수 합계로 결정되는 단체전 예선에선 2천38점을 쏴 세계신기록(종전 2천32점)을 경신했다. 남자 양궁에선 이승윤(코오롱)이 693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32강에 직행했다. 대표팀은 남녀 리커브 단체·혼성전 예선도 자동 통과해 16강이 겨루는 본선에 진출했다.

쌍둥이자매인 김우리(21·수원FMC)와 김두리(21·인천현대제철) 등이 뛰는 여자 축구는 조별리그 2연승을 거두며 8강 진출을 확정했다. 정동윤(성균관대)·이정빈(인천대)·이현성(용인대) 등이 출전한 남자 축구도 조별리그 A조 2차전 이탈리아를 물리치고 8강행 티켓을 따냈다.

한국 여자테니스 기대주 한나래(강원관광대·인천시청)는 5일 여자 단식 2회전에서 산 마틴 카밀라 노에리아(아르헨티나)를 세트스코어 2-0(6-0,6-0)으로 꺾고 16강이 겨루는 3회전에 진출했다.

하지만 광주 출신으로 이번 대회 개막식 성화점화를 맡는 등 기대를 모은 한국 체조 간판스타 양학선(23·수원시청)은 4일 경기 도중 오른쪽 햄스트링 근육 급성 파열 부상으로 남은 경기 출전을 결국 포기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금메달 25개 이상을 획득해 메달 순위 종합 3위를 목표로 세운 한국은 대회 초반인 5일 현재(20시 기준) 금 4, 은 5, 동 5개로 순항 중이다.

/임승재·이원근기자 isj@kyeongin.com

임경현 루키안

부천FC, 1부출신 임경현 영입 브라질 용병 루키안과 계약도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리그) 부천FC1995가 클래식(1부리그) 출신의 공격수 임경현과 브라질 출신 용병 루키안을 영입했다.

임경현은 지난 2009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부산에서 데뷔해 수원과 전남을 거치며 K리그 통산 35경기 2득점 4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13년 7월 전남 이적 후에는 눈부신 활약으로 강등 위기에 놓인 팀을 벼랑 끝에서 구하며 축구 팬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부천FC는 날카로운 킥 능력과 감각적인 볼 터치가 강점인 임경현을 영입, 보다 조직적이고 활력 있는 공격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FC는 또 브라질 출신의 용병 루키안도 함께 영입했다. 루키안은 183cm, 77kg의 탄탄한 체격을 갖췄다.

부천FC 관계자는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선수가 필요했다. 임경현의 기량과 센스로 우리 공격진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루키안은 다부진 체격에서 나오는 파워가 좋은 선수다. 호드리고, 알미르와 함께 부천의 공격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4일 수원 호텔 캐슬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야구협회장 취임식에서 이태성 회장(오른쪽)이 경기도체육회 최규진 사무처장으로부터 인준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원근 기자 lwg33@kyeongin.com

이태성 경기도야구협회장 취임

제11대 경기도야구협회장으로 (주)아시아전관 이태성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도야구협회는 지난 4일 수원 호텔 캐슬에서 최규진 도체육회 사무처장, 이일복 대한야구협회 전무이사, 임진국 대한야구협회 홍보이사, 각 시·군 야구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경기도야구협회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화합과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 협회의 내적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도야구협회 제8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도야구협회가 3월부터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경기도체육회 사고단체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자(경인일보 5월22일자 14면), 이 회장이 한 번 더 회장직을 맡기로 결심했고 이후 도야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원톱' 정대세, 포항에 비수

결승골 작렬… 수원삼성 2위 지켜

성남FC는 부산 꺾고 3연승 행진

인천Utd, 제주와 득점없이 비겨

프로축구 K리그클래식(1부리그) 수원삼성이 정대세의 결승골에 힘입어 포항 스틸러스를 원정에서 물리치고 선두 전북 현대를 맹추격했다. 성남FC는 3연승을 달렸고, 인천 유나이티드는 무승부를 기록하며 5경기째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수원은 지난 4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2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포항을 1-0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수원은 승점 36점(10승6무4패)을 기록, 3위 포항과의 승점 차를 6점으로 벌리며 단독 2위 자리를 확고하게 다졌다. 수원은 전반 32분 정대세가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수비수를 제치고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포항은 후반 공세의 수위를 높였으나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신진호의 프리킥이 골대를 맞는 등 골운이 따라주지 않았다.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선 성남FC가 전반 38분 김두현의 페널티킥 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뒀다. 성남은 황의조가 상대 문전에서 공중볼을 다투던 중 부산 수비수 안세희로부터 파울을 얻어냈고 키커 김두현이 침착하게 차 넣었다. 이로써 3연승을 달린 성남은 승점 29점(7승8무5패)을 쌓아 6위로 올라섰다.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는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0-0으로 비겼다. 인천은 비록 3연승 도전에 실패했지만, 최근 5경기 연속 무패(3승2무)이자 3경기째 무실점을 기록했다.

/임승재·이원근기자 isj@kyeongin.com

K리그 클래식 2015 4라운드

4일 포항

수원 삼성 1-0 포항 스틸러스

골 정대세⑥(전32분·수원)

4일 부산

성남FC 1-0 부산 아이파크

골 김두현⑥(전38분·PK·성남)

4일 제주

인천Utd 0-0제주Utd

"기세 몰아 리우 접수"

'첫금 주인공' 조구함

"기세를 몰아 리우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겠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긴 남자 유도 100kg이하급 조구함(수원시청, 용인대 소속)은 2년 전 러시아 카잔 대회에서도 한국 1호 금메달을 따낸 주인공이다. 조구함은 5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두 대회 연속 첫 금메달을 따내 기분이 좋다"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대회이니 만큼 꼭 우승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구함은 "경기중 판정 번복이 되면서 점수를 뺏기는 고비도 있었는데 송대남 코치님의 지도로 시합을 잘 마무리했다"며 "다음달 열리는 세계선수권과 내년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경기도체육회 제공

양주덕현초, 쇼트트랙 팀 창단

경기도 양주덕현초등학교(교장·신호권)에 빙상 쇼트트랙 팀이 생겼다.

덕현초는 지난 3일 학교 도서실에서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정기훈 경기도빙상경기연맹 전무이사, 한명근 경기도빙상경기연맹 총무이사, 홍윤표 양주시청 평생교육체육과장, 안종섭·이희창 양주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쇼트트랙 팀 창단식을 열었다.

팀은 최태호 전임 코치와 이동현(5년)·이효민(4년)·노연우(4년)·이다은(1년) 등으로 이뤄졌다.

최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학교 운동부 운영이 어려워 기존 팀도 해체하는 시기에 빙상팀 창단으로 우수선수 발굴의 기회를 만들어 준 신호권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양주시와 양주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상승세 탄 kt "곰 기다려"

두산 제외 전구단 상대 승리 경험

프로야구 수원 kt wiz가 확 달라졌다. kt가 만나기만 하면 좀처럼 맥을 못 추며 올 시즌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난적'들을 잇달아 격파하고 있다. 이제 두산 베어스 한 팀만 꺾으면 전 구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

kt는 지난 3~5일 치러진 2015 타이어O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의 홈 경기를 '스윕'으로 장식했다. KIA만 만나면 힘을 쓰지 못했던 kt였다. 올 시즌 개막 후 지난달까지 KIA와 매달 3연전을 치렀지만 단 한 차례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8연패를 당했다. 그랬던 kt가 이번 주말 3연전에서 KIA를 상대로 2연승을 달린 것이다. 특히 KIA 원투 펀치였던 스틴슨과 양현종을 연달아 무너뜨린 kt의 타선이 돋보였다.

앞서 kt는 삼성과의 원정경기(6월28일)에서 8-3으로 승리, 삼성전 창단 첫 승을 거둠과 동시에 6연패의 사슬을 끊어낸 바 있다. KIA까지 꺾은 kt는 이제 마지막 남은 두산만 잡으면 전 구단을 상대로 승리를 따내게 된다. 두산과의 시즌 전적은 7패. 오는 14~16일 잠실에서 열리는 전반기 마지막 3연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 오늘의 경기 |

△여자축구= WK리그 인천현대제철-화천KSPO(남동아시아드경기장) 부산상무-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상 19시·보은종합운동장) 서울시청-대전스포츠토토(17시·효창종합운동장) △여자농구= 박신자컵 서머리그(13시·강원도 속초실내체육관)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14일·광주광역시 일원)

손안의 뉴스친구 앱시리즈 경인일보 '모바일 K'

태·권! 사할린 가득 메운 '고국의 기상'

/아이클릭아트

'광복 70년, 경인일보 창간 70년, 러시아 사할린을 가슴에 품다'. 경기도 태권도시범단(경희대태권도시범단)이 유즈노 사할린주 사할린스크시민과 고려인들에게 태권도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도 태권도시범단의 멋진 공연에 고려인들의 애환도 웃음으로 바뀌었다.

2015 한국-러시아 스포츠교류 겸 경제교류에서 경기도 태권도시범단이 사할린 시민들 앞에서 멋진 공연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 사할린/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경기도 태권도시범단 현지 공연
교과서 같은 품새·격파에 탄성
1500여 관객들 큰 박수로 화답
동포들에게 꿈과 용기 심어줘

도 태권도시범단과 경기도 경제인들이 참여한 '광복 70년, 경인일보창간 70주년 기념' 2015 한국-러시아 스포츠 페스티벌 겸 경제교류가 지난 4일 오후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주 사할린스크시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 자리에는 주최사인 경인일보 송광석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주관사인 오스트로브 무술학교 천은곤(천 알렉세이) 이사장, 에브게니 로틴(Evgeny Lotin) 사할린주 국회의원, 안수학 사할린 태권도협회 부회장,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민경원 사무총장, 경제·스포츠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선수단을 환영했으며 1천500여 명의 관람객들이 경기장을 찾았다.

사할린주 선수단은 태권도를 비롯해 종합격투기(MMA), 킥복싱, 가라테 등의 시범을 보이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 관람객들의 인기를 모았다.

이어 도 태권도시범단은 드라마 같은 퍼포먼스로 진한 감동을 전했다. 도 태권도시범단은 정확한 품새와 고난도 격파, K-POP '강남스타일' 노래에 맞춰 화려한 율동을 선보이는 등 30여 분간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이들의 공연은 머나먼 이국땅에서 힘들게 살아온 사할린 동포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공연이 끝나자 사할린스크 시민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이들을 격려했다.

또 이 자리에는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준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있었다. 송광석 사장은 천 이사장과 로틴 국회의원, 안수학 부회장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송광석 사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 러시아 전승 70주년, 그리고 경인일보 창간 70주년의 해이다. 이런 뜻깊은 행사를 사할린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감격스럽다"면서 "이번 행사가 사할린에서 한민족의 기상을 지켜온 고려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양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 2~3일 양국 경제인들의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4~5일 스포츠, 문화 교류 등을 끝으로 막을 내렸으며, 도 태권도시범단과 도 경제인들은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러시아 사할린/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손안의 뉴스친구 앱시리즈
경인일보 '모바일 K'

2015 한국-러시아 스포츠교류 겸 경제교류에서 경인일보 송광석(왼쪽) 대표이사 사장이 사할린 오스트로브 무술학교 천은곤 이사장에게 감사패와 고려청자를 전달하고 있다.

러시아 사할린/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러 수출기업에 '날개'를 달다

경경련, 사할린주 찾아 MOU
강소기업 '수출입 판로' 개척
민경원 사무총장 "시너지 기대"

한·러 경제협력을 계기로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강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러시아 정부와 재정협력 MOU를 맺는 등 경제 교류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만의 해외수출 지원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의 첨병에 선곳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회장 박상진, 이하 경경련)로, 지난 3일 민경원 사무총장이 직접 러시아 사할린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경제교류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했다. 러시아 방문길에는 계룡물산 등 경기도내 6개 중소기업대표단도 함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경련과 사할린주 상공회의소는 ▲경기도 강소기업의 기술도입과 수출입 판로 개척 ▲투자확대 등 경기도와 러시아의 경제발전과 경제교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경원 경경련 사무총장이 지난3일 사할린 주 정부 간담회가 끝난후 사할린 주 드미트리 한 투자 대외관계부 차관에게 여주의 특산품 도자기를 전달하고 있다. /경경련 제공

특히 민 사무총장과 경기도내 6개 기업 대표단은 러시아 사할린 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를 방문해 한 드미트리 투자대외관계부 차관·노스브 블라디미르 외교부 대표·올호빅 사할린 주 상공회의소 회장 등 사할린 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우호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민경원 경경련 사무총장은 "경기도의 우수한 인재와 기술이 합쳐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윤·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광복 70주년 맞아 뜻깊은 행사 기뻐

천은곤 이사장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양국 스포츠·경제 분야가 더욱 발전됐으면 합니다."

'광복 70년, 경인일보 창간 70주년 기념' 2015 한국-러시아 스포츠 페스티벌 겸 경제교류를 성공적으로 주관한 오스트로브 무술학교 천은곤(천 알렉세이·사진) 이사장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러시아 사할린에서 뜻 깊은 행사를 열게 돼 기쁘다"며 "주최사인 경인일보사를 비롯 주관사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태권도 시범단, 경제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천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3개월 전부터 많은 준비를 했다"면서 "사할린에는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도 태권도 시범단과 경제인들이 참가하는 교류 행사를 갖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사할린의 대표적인 무술학교와 경호업체, 건설회사 등을 운영 중이다. 또 지역 사회에서 큰 일익을 담당하는 등 사할린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그는 "러시아는 한국과 더불어 스포츠 강국이다. 특히 동계종목은 큰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경기도와 축구, 태권도, 유도 등 스포츠 교류를 해왔다. 앞으로 동계종목까지 활발한 교류를 펼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이사장은 경제 교류에 대해서도 "아직 시작이지만, 러시아에는 분명 더 많은 먹거리가 있다. 한국이 이런 점을 잘 이용해 경제적으로 접근한다면 양국 모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는 시작하는데 의미가 있다. 향후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양국 스포츠 및 경제, 문화 교류가 지속 되길 바란다. 이번 행사를 주최해 준 경인일보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러시아 사할린/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화가 이름만으로 설레는 유럽의

살바도르 달리作 '초현실주의 꽃소녀'

20세기 유럽 현대미술 대표주자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롯데갤러리 안양점은 오는 30일까지 20세기 현대미술을 주도했던 세계적인 화가들의 작품 33점을 모아 '봉쥬르 유럽'전을 개최한다.

파블로 피카소, 마르크 샤갈, 호안 미로, 살바도르 달리, 세자르 발다치니, 아르망 피에르 페르낭데, 막스 노이만, 피에르 알레친스키, 로베르 콩바, 나탈리 미엘, 헨리 무어 등 이름만 들어도 전율이 오는 천재 화가 11명의 작품이 공개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들이 활동했던 당시의 유럽은 전쟁으로 인해 정치·경제적 혼란이 극심했던 시기로, 미술계도 혼란과 혁명의 갈래 속에 미학적 실험들이 수없이 시행됐었다. 이번 전시에 공개된 작품 대부분은 이들 작가들이 회화 뿐 아니라 판화, 도자기 등 다양한 조형방식을 통해 예술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풀어내려 노력한 흔적이다.

이번 전시에서 입체파 화가이자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파블로 피카소의 도자기 작품 2점을 볼 수 있다. '얼굴'을 주제로 눈, 코, 입을 분리해놓은 듯한 그림을 그려넣은 도자기는 한가지 관점이 아닌, 다각도에서 대상을 해체해 하나의 화폭에 표현한 입체주의 작품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스페인 출신의 피카소와 어깨를 나란히 한 또 한명의 스페인 작가 살바도르 달리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초현실주의 화가다. 이번 전시에서는 '초현실주의 꽃, 소녀' 작품을 선보이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공간 속에 소녀의 몸과 꽃의 얼굴이 합쳐져 비논리적이면서도 몽롱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러시아 태생이지만,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마르크 샤갈은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과 사랑하는 여인이 등장하는 '이즈바의 연인'을 통해 관객과 만난다. 다양한 미술사조가 득세하던 20세기 였지만, 어느 한 사조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발전시켰던 그는 환상적인 구도와 풍부한 색감으로 인생의 서사를 담은 따뜻하고 몽환적인 작품을 남겼다.

이밖에도 야수주의, 입체주의 등 다양한 미술양식을 소화했던 스페인 출신 호안미로의 '거대한 마법사', 산업사회가 배출한 금속성 재료를 이용해 조각작품을 발표, 이른바 '스크랩 아트' 대가인 세자르 발다치니의 '압축된 엽서들' 등 현대미술 거장들의 숨겨진 작품들이 전시된다.

전시문의:롯데갤러리 안양점 (031)463-2715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파블로 피카소 作 '얼굴'

롯데갤러리 안양점, 피카소·달리·샤갈 등 20세기 작품 33점 특별전

▲▲ 호안 미로作 '거대한 마법사'
▲ 마르크 샤갈作 '이즈바의 연인'

썸타는 국악, OO과 바람났어

도문화의전당 18일 퓨전공연
록·집시 등 다양한 장르 섞어

국악과 다른 장르가 한데 어우러진 이색 기획 공연이 경기도에서 펼쳐진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오는 18일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에서 전통과 현대, 동·서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퓨전국악 공연 '바람난 국악' 첫 시리즈를 개최한다. 바람난 국악은 공연 이름처럼 다양한 장르를 결합해 국악으로만 한정됐던 국악 공연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관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실험적인 무대다.

공연 첫 무대는 퓨전 국악밴드 '고래야'가 장식한다. 고래야는 판소리 보컬에 거문고·대금·장구 등의 국악기, 브라질 타악기인 브라질퍼커션(Brasil Percussion) 등이 더해져 조화를 이루는 6인조 밴드로, 지난 2011년 신진국악 콘테스트 '천차만별 콘서트'에서 대상을 받으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듬해 KBS 2TV 밴드서바이벌 '톱밴드2'에서 16강에 진출해 대중들에게 알려진 후 스핑크스 믹스드(Sfinks Mixed)·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세계적 음악 시장 '미뎀(MIDEM)' 등 해외 무대에도 진출해 국악을 알리고 있다.

이번 공연은 방학과 휴가철에도 여유 없이 바쁘기만 한 대한민국 청춘들을 위로하자는 주제로 마련됐다. 고래야는 특히 국악 고유의 가창법에 거친 음색을 그대로 표현하는 연주법을 가미해 록·집시·아프리카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예정이다.

랩배틀 형식으로 숫자 1부터 10까지 언어유희를 펼치는 '잘못났어', '태평가'를 각색한 '전폭적으로 놀아보세', 브라질 동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가수 루이즈 곤자가(Luiz Gonzaga)의 대표곡 '아사 브랑카(Asa Branca)'의 번안곡 '하얀날개' 등이 고래야 특유의 감성으로 재해석된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김영섭 作, '새아침' / 2012나눔회 제공

예술성향 달라도 이웃돕는 마음은 하나

수원미술협-민예총 나눔회
작품 판매수익금 전액 기부

다른 예술적 성향을 지닌 두 예술단체 작가들이 수원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뭉쳤다.

수원미술협회와 수원 민예총의 미술작가들이 모인 '2012나눔회'가 6일부터 14일까지 수원문화재단 기획전시실에서 두 번째 회원 정기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수원 미협 부회장 박태균 작가를 주축으로 이해균, 김성기 등 수원미협 소속작가들과 이주영 수원 민예총 지부장을 비롯해 신승녀, 이오연 등 수원민예총 소속작가 등 총 22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2012나눔회 회장인 박요아 작가는 "비록 다른 예술적 성향을 가졌지만, 이웃을 돕겠다는 한마음으로 모인 만큼 서로의 그림을 이해하고, 함께 예술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2012나눔회는 지난 2012년 수원지역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수원 미술작가 모임이다. 회원 작가들은 나눔전을 열어 작품을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다.

/유은총기자 yooec86@kyeongin.com

어린이요델합창단 알프스송
인천시립박물관 '…음악여행'

인천시립박물관이 개최하는 박물관 음악회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7월 공연이 오는 12일 오후 4시 박물관 석남홀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에는 '한국어린이요델합창단'이 출연해 때 묻지 않은 목소리로 아름다운 알프스 지방 민요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합창단은 '아름다운 베르네 산골 메들리'와 '에델바이스(Edelweiss)', '요델리 요델리', '바이에른의 소녀', '도레미송 메들리' 등 귀에 익숙한 곡들과 우리가요 80년 메들리, 독도사랑 가요 메들리, 아리랑 메들리 등 모두 19곡을 연주한다. 1999년 창단한 한국요델어린이합창단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TV 방송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출연하고, 2011년 KBS 전국민합창대축제 금상과 2012 대교방송 코러스코리아에서 금상을 받는 등 국내 요들계에서 잘 알려졌다.

공연 관람을 원하면 8일 오전 9시부터 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incheon.go.kr)에서 예약하면 된다. 인터넷 예약을 못 한 분들을 위해 당일 공연 30분 전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배부한다. 문의:(032)440-6735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권력화 된 갤러리 아닌 자유의 공간

인천 주안동 골목길에 문연 '대안공간 듬' 최바람 대표

작가는 마음 먹은대로 작품 활동

주민들은 미술에 익숙해졌으면…

관객과 끊임없이 대화하길 바라

인천시 남구 주안동 신기시장 뒤편 주택가 골목길을 걷다 보면 도심 번화가에서나 만날 수 있을법한 깔끔한 외관의 전시장과 카페가 나타난다.

바로 '대안공간 듬'이라는 전시장과 '꿈에 들어와'라는 카페다. 지난 3일 오후 대안공간 듬에서 7월 전시를 앞두고 막바지 조명 수정 작업에 한창인 최바람(43·여) 대표를 만났다.

최 대표는 "이곳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그저 미술에 익숙해 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문을 열게 된 전시공간"이라고 말했다.

낡은 주택이 모여 있는 골목 한복판에 전시장과 카페가 문을 연 것은 지난해 12월 26일. 전시장으로 쓰고 있는 자리는 반쯤 허물어진 채 수년째 폐가로 방치되던 토담집이었고 카페는 70대 할머니가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이었다. 최 대표와 신기시장 근처에 있는 이랑도서관의 신미선 운영위원장, 차기율 인천대 교수 등이 의기투합해 만든 공간이다.

"작가를 선정하고 작품을 전시·수집·판매하는 지금의 갤러리는 이미 권력화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작가들은 갤러리의 간섭에서 벗어나 마음먹은 대로 하고 싶은 작업들을 맘껏 편하게 전시하고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미술과 익숙해 지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안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기는 했지만,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을 뿐 아직 자신이 찾는 대안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대안을 과연 찾을 수 있을지 그도 확신이 안 선다고 했다.

하지만 때로는 호기심 가득 찬 눈빛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지금의 작은 변화들만으로 그는 충분하다고 했다. 이 마을에 터를 잡은 이상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계속될 것은 분명하다는 얘기였다.

최 대표는 "앞으로 특별히 거창하게 내세울 계획은 없다"며 "계속 대안공간 듬에 어울리는 전시를 열고 끊임없이 관객들과 대화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시장 뒤편 주택가 골목길에 '대안공간 듬'이라는 전시장을 연 최바람 대표.

수원지법 갤러리서 10일 보호소년 '꿈꾸는 엽서전'

수원지법(법원장·성낙송)은 보호시설에 위탁된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엽서공모전 '꿈꾸는 엽서전'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범행 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이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돼 지난달 심사가 끝났다.

수원지법은 응모작과 수상작을 오는 10일 법원 내 갤러리 '동행'에 전시할 예정이며, 수상자들에게는 1만~10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부상으로 수여키로 했다.

성 법원장은 "보호소년에게 도전의식과 열정, 성취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호응 바란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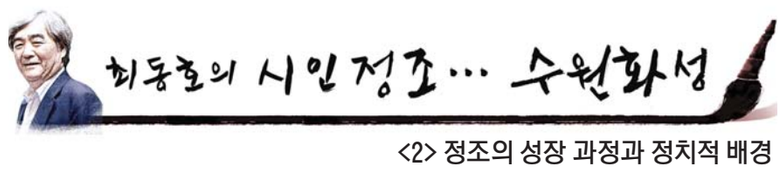
수원지법은 10일 법원 내 갤러리 '동행'에서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엽서공모전 '꿈꾸는 엽서전'을 실시한다. /수원지법 제공

인천문화재단 인천왈츠 단원 공모

인천문화재단이 창작 뮤지컬 '인천왈츠'에 출연할 2015년 시민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 직장인, 주부,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하고 오는 11월 7~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공연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ifa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2)455-7144.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 정조의 성장 과정과 정치적 배경

아버지의 죽음… 참담했던 세손시절

<사도세자>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12일 세손으로 책봉되었다. 그의 세손시절은 참담하고 곤혹스러운 것이었다. 그가 10살이었던 1762년 임오년 2월 2일에 가례를 올렸으나 동년 음윤 5월 21일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임을 당했다. 이 사건은 조선조 최대의 비극적 사건 중의 하나였다. 이후 그는 여러 번 닥쳐온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영조의 명으로 1775년 12월 10일부터 대리청정을 시작했으며 다음해인 1776년 을미년 영조 51년 영조가 승하하자 3월 10일 25세 나이로 국왕에 등극했다.

뛰어난 문필가로 알려진 정조어필(신제학정민 시출안호남). /문화재청 제공

'생존과 상처극복' 두가지 숙제

시 통해 내적 고뇌 승화했을 듯

세손 시절 정조에게 가장 큰 상처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 죽음이다. 사도세자(1735~1762) 죽음의 그 배후에는 복잡한 정치적 이해가 얽혀 있다. 사도세자는 1749년 영조의 명으로 대리청정을 시작했으나 남인 세력을 중용하여 노론 세력과 갈등을 유발했으며 이것이 부왕 영조와의 마찰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 물론 그 자신의 우울증에 가까운 정신적 유약함도 중요한 원인이기도 했다. 사도세자의 폐위와 직접 관련된 사건은 1762년 평안도 밀행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영의정 이천보, 우의정 민백상, 좌의정 이후 등이 자결을 명받았고 세자에게도 자결을 명하였으나 듣지 않자 영조는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세자를 뒤주에 감금시켜 아사하게 했다. 영조로서는 장차 왕이 될 세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고 대노했으며 아버지로서는 처결하기 힘든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 사건의 전면에 노론 세력이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세자의 등극을 반대하는 파의 은밀한 책동과 충동질이 있었을 것이다. 1775년 봄 노환에 시달리던 영조가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묻자 적신 홍인한이 앞장서서 '동궁께서는 노론과 소론을 알 필요가 없으며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의 일에 있어서는 더욱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답했을 정도이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고 실록은 전한다. 일 년 후 영조가 승하하고 등극한 정조가 맨 처음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세손 시절 정조가 가진 두 가지 명제는 살해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과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이 주는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이었을 터이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을 다스려 줄 수 있는 문학이 필요했을 것이며 특히 시를 통해 자신의 내적 고뇌를 승화시켜야 했을 것이다.

TV 프로그램 6일(월)

경인일보를 CJ헬로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안내 : CJ헬로TV 데이터방송 메인 → 게임&조이 채널 → TV신문

◆수원모범그린콜◆ 225·8282

	KBS 1	KBS 2	MBC	SBS	OBS	채널 A
5	5:00 KBS 뉴스 5:10 내고향 스페셜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6:00 2TV 아침	5:00 MBC뉴스 5:10 MBC네트워크 특선 사람, 산 6:00 MBC 뉴스투데이-1, 2부 7:50 (劇) 이브의 사랑	5:00 SBS 5뉴스 5:10 SBS 특선 다큐멘터리 6:00 모닝와이드-1, 2, 3부	6:00 오! 이맛이야 (재) 6:50 TV 주치의 (재) 7:05 독특한 연예 뉴스 (재) 7:45 OBS 뉴스 745	4:30 보름달 공장 5:00 국립공원기행 (재) 5:30 TV주치의 닥터 지.바.고 (재) 6:40 굿모닝 A
8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TV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9:40 여유만만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MBC 생활뉴스 9:45 기분 좋은 날	8:30 (劇) 어머님은 내며느리 9:10 좋은 아침	8:15 아시아 TOP 5 (재) 8:45 로드다큐 <만남> (재) 9:45 OBS 뉴스 945	8:00 아침경제 골든 타임 9: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10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KBS 네트워크 특선 촌촌촌 11:55 바른말 고운말	10:40 지구촌 뉴스 11:10 월화드라마 <너를 기억해> (재)	11: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0:05 드라마 극장 <유나의 거리> (재) 11:15 Music & Movie 11:45 OBS 뉴스 <경인투데이>	10:20 시사 인사이드 11:30 채널 A 뉴스 특보 (재)
12	12:00 KBS 뉴스 12 1:00 대조영 (재) 1: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재)	1:00 1대100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1:10 꾸러기 식사교실 1:40 똑? 똑! 키즈스쿨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50 순간포착 스페셜	12:05 연예매거진 <좋은일, 나쁜일, 수상한일> (재) 1:05 OBS 초대석 (재)	1:50 뉴스 특급
2	2:00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특별생방송 웰컴 투 광주 2:30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여기는 광주	2:00 KBS 뉴스타임 2:10 인간극장 스페셜 2:50 2TV 저녁 생생정보 3:4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2:30 어린이 직업 탐험대 드림키즈 스페셜 3:00 MBC 뉴스 3:10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3:40 문화사색	2: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00 SBS 뉴스 3:10 잘먹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2:05 행복 부동산 연구소 2:35 OBS 애니월드 <로봇 찌빠> 2:45 OBS 뉴스 245 3:05 꾸러기 TV <벼리의 시간 여행> 3:30 TV 주치의 3:45 인생열전 <살 맛 나는 세상>	3:00 직언직설
4	5:00 KBS 뉴스 5 5:20 시사진단	4: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40 TV 유치원 5:10 검정고무신 4 5:40 동물의 세계	4:2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 (재) 5:00 MBC 이브닝 뉴스	4:00 꾸러기 탐구생활 스페셜 4: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5:00 SBS 뉴스퍼레이드 5:30 꿈의 라이브 프리즘스톤	4:45 OBS 뉴스 & 이슈 5:45 드라마 극장 <유나의 거리>	4:10 쾌도난마 5:30 박정훈의 뉴스 TOP10
6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7:00 KBS 뉴스 7 7:30 우리말 겨루기	6:00 KBS 글로벌 24 6:30 2TV 저녁 생생정보 7:50 (劇) 오늘부터 사랑해	6:10 생방송 오늘 저녁 7:15 (劇) 위대한 조강지처 7:55 MBC 뉴스데스크	6:00 생방송 투데이 7:20 (劇) 돌아온 황금복	6:55 오늘은 경인세상 7:45 OBS 뉴스 M	7:10 TV주치의 닥터 지·바·고
8	8:25 (劇) 가족을 지켜라 9:00 KBS 뉴스 9	8:30 반려동물 극장 단짝 8:55 위기탈출 넘버원	8: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 9:30 리얼스토리 눈	8:00 SBS 8 뉴스 8:55 생활의 달인	8:25 오늘의 월드뉴스 8:55 독특한 연예뉴스 9:45 다큐드라마 <빅 히스토리>	8:20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재) 9:30 채널 A 종합뉴스
10	10:00 가요무대 11:00 KBS 뉴스라인 11:40 TV, 책을 보다	10:00 월화드라마 <너를 기억해> 11: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00 월화특별기획 <화정> 11:15 MBC 다큐스페셜 -잠을 지배하라	10:00 월화드라마 <상류사회> 11: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0:40 OBS 京仁 뉴스라인 11:05 로드다큐 <만남>	10:50 채널 A 스포츠 뉴스 11: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재)
12	12:20 해외걸작다큐멘터리 1:20 해외걸작드라마 (재)	12:30 스포츠 하이라이트 1:30 특파원 현장보고 (재)	12:15 MBC 뉴스 24 12:3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12:50 스포츠 특선 2015 코리아 오픈 국제 탁구대회 1:50 TV예술무대	12:35 나이트 라인 1:05 프로야구 중계석 2:00 2015 FIFA 여자월드컵 결승전	12:05 멜로다큐 <가족> 스페셜 1:00 Music & Movie (재) 1:30 인생열전 <살 맛 나는 세상> (재)	12:40 모큐드라마 싸인 2:10 갈데까지 가보자 (재) 3:20 국립공원기행 (재) 3:50 TV 악학궤범 (재) 4:00 보름달 공장

EBS·종합편성채널·케이블·위성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짐엔콜 TEL. 253·6666

EBS/종합편성채널

EBS
7:45 뽀롱뽀롱 뽀로로
8:35 최고다! 호기심딱지
9:40 토크쇼 부모-고수다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0 EBS 스페이스 공감
13:1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14:45 미앤 마이로봇
16:00 딩동댕 유치원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30 뽀롱뽀롱 뽀로로
18:00 톡! 톡! 보니 하니 1
19:30 EBS 뉴스
50 다문화 고부열전 스페셜
20:40 다큐오늘
50 세계테마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23: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05 EBS 인문학 특강
1:00 EBS 초대석

TV 조선
4:30 싸이킥스
5:00 낭만과 논리가 있는 토크쇼 낭만논객
6:00 생방송 광화문의 아침-1부
8:00 살림 9단의 만물상
9:00 TV조선 뉴스 9
10:00 김광일의 신통방통
11:30 솔직한 연예토크 호박씨
13:00 엄성섭 정혜전의 뉴스를 쏘다
15:00 정치부장 이하원의 시사Q
16:00 장성민의 시사탱크
17:30 이슈 해결사 박대장
18:50 정보끝판왕 황금마차
20:20 TV조선 스페셜 TV조선 2015 서울 고메 2015
21:30 TV조선 뉴스쇼 '판'
22:50 TV조선 스포츠 '판'
23:00 이것은 실화다
24:20 대찬인생
1:50 강적들
3:20 엄마의 봄날

JTBC
4:50 JTBC스페셜 다큐멘터리 BBC 아프리카 꿀벌의 대이동
6:00 5일간의 썸머
7:00 이야기 보따리
30 아침 &
9:10 사랑하는 은동아
10:25 마녀사냥
11:55 김제동의 톡투유
13:1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14:25 뉴스 현장
15:40 4시 상황실 사건반장
17:00 정치부 회의
18:3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19:55 JTBC 뉴스룸
21:40 냉장고를 부탁해
23:00 비정상회담
24:30 화이트 스완
1:30 님과 함께 시즌2 -최고의 사랑
2:40 5일간의 썸머
3:40 닥터의 승부

MBN
3:50 먹티와 잼잼 시즌 2
4:50 휴먼다큐 사노라면
5:50 나는 자연인이다
6:50 굿모닝 MBN
8:00 아침의 창 매일경제
9:20 뉴스파이터
10:30 속풀이쇼 동치미
11:40 아궁이
12:5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15:20 뉴스 BIG 5
16:40 뉴스 & 이슈
18:0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뉴스 8
20:40 고수의 비법 황금알
21:50 남심북심 한솥밥
23:00 고수의 비법 황금알
1:40 휴먼다큐 사노라면
2:50 소나무
3:50 먹티와 잼잼 시즌 2
4:50 리얼다큐 숨

케이블/위성

캐치온
8:50 하와이 파이브-오 시즌 5
11:00 쉐임리스 시즌 5
12:00 아트 오브 더 스틸
13:35 톰스톤(2014)
15:35 벨(2014)
17:25 와이 스톱 나우
18:55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20:50 안녕, 헤이즐

XTM
9:15 가제트
10:20 남자공감랭크쇼
11:15 GET IT GEAR
14:40 패션정글
15:00 SNL KOREA 시즌 6
16:55 나는 영화감독이다
17:55 더 벙커 5
19:10 남자들의 동영상 랭크쇼

KBS 드라마
8:40 파랑새의 집
11:20 그래도 푸르른 날에
13:20 복면검사
16:00 오늘부터 사랑해
17:20 그래도 푸르른 날에
19:20 프로듀사
22:00 1박 2일 시즌 3
23:30 슈퍼맨이 돌아왔다 쌍둥이

MBC 드라마넷
10:30 복면가왕
13:20 화정
16:00 이브의 사랑
17:20 위대한 조강지처
18:40 나 혼자 산다
20:00 복면가왕
21:30 마이 리틀 텔레비젼
22:50 위대한 조강지처

SBS 드라마 플러스
8:00 너를 사랑한 시간
10:50 돌아온 황금복
12:20 어머님은 내 며느리
13:50 상류사회
17:40 돌아온 황금복
19:10 너를 사랑한 시간
21:50 당신을 주문합니다
22:50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빌리어즈 TV
11:00 투데이 해피라이프
12:00 제1회 경기도당구연맹회장배 GPT 한국 여자 포켓볼 챔피언십
13:00 2015 부산당구연맹회장배 영남선수권대회
15:00 빌리어즈 TV 코리아 오픈
17:00 제3회 국토정중앙배 2015 전국당구선수권대회

Mnet
9:00 발칙한 인터뷰 4가지쇼
11:00 Mnet Music Twit
13:30 M COUNTDOWN
16:50 DAILY MUSIC TALK
19:20 야만 TV
20:20 Back to the 너. 목. 보
21:40 식스틴(SIXTEEN)
23:00 쇼미더머니 4

내셔널 지오그래픽
10:00 건강한 아침, 메티컬 365
11:00 와일드 순간포착
12:00 이것은 실화다
13:00 와일드 콜롬비아-1, 2, 3부
20:00 살인마로 돌변한 동물
22:00 사이언스 오브 데인저
23:00 사상 최악의 참사
24:00 아프리카 들개의 일생

복지TV
8:20 희망풍경
10:20 박시백의 세계 유산 순례
11:50 복지TV 뉴스
13:50 WBC 생방송 전국나눔노래자랑
17:50 아름다운 이야기-보석상자
18:50 일일드라마 <내일은 맑음>
19:50 WBC 전국나눔노래자랑
22:10 라이프 스타일 예보

투니버스
9:00 출동! 슈퍼윙스
11:00 뽀롱뽀롱 뽀로로 4
12:00 리틀펫샵
15:00 공룡킹 어드벤처
15:55 요괴워치
16:55 짱구는 못말려 14
18:00 짱구는 못말려 X파일 2
19:00 괴도키드 1412

김나인의 오늘의 운세 6일 (음 5월 21 일 癸未)

한국역리연구소 (031)237-0693

애정 상승 건강 무난 재물 무난
32세 윗사람이 이끄는대로 처신하면 문제될 것없으니 힘내도록. 44세 운기 서서히 회복되니 자신감갖고 움직이면 명예에 좋은일이. 56세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되니 무언으로 하루를. 68세 세상에 공짜는 없는법이니 고생한 사람들 잘 챙겨주도록.

애정 무난 건강 상승 재물 무난
31세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말고 보여질 것에 가치를 두도록. 43세 욕심을 버리면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알아야. 55세 건강이 회복되고 신변에 좋은일 생기니 만사형통. 67세 길은 멀어도 안전한 길 가는 것이 밝은 미래 약속하는 길.

애정 무난 건강 무난 재물 상승
30세 남에게 인정받으려면 그 만한 가치를 보여주어야 하는법. 42세 급료가 오르고 신변에 좋은 변화있으니 명예로운일이 생기고. 54세 초지일관 한길 가는 것이 어려운 현실 극복하는 길. 66세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는 의미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애정 하락 건강 무난 재물 무난
29세 감정조절 못하면 큰 후회하게되니 시비거리는 만들지말고. 41세 말한마디 귀한 인연 잃게되니 서운한 마음있더라도 내색말기를. 53세 인정에 얽매이면 큰 손해보게되니 중심바로하고. 65세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면 큰코다치니 조심하도록.

애정 상승 건강 무난 재물 무난
40세 시험 취직등에 좋은 길이 열리니 기회활용 잘하면 큰 보람이. 52세 믿는 마음이 중요하니 확신갖고 길나서면 좋은 결과 있게되고. 64세 일이 생기면 직접 나서서 해결짓는 것이 유리. 76세 작은일이라도 성심껏 이행하면 더 큰 보람 찾게되고.

애정 무난 건강 무난 재물 무난
39세 무리하면 탈나게되니 이동문제 너무 앞서가지말기를. 51세 가는길이 험해도 가야할 길이라면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이롭고. 63세 무거운 짐 벗는일이 우선이니 조용히 내려놓도록. 75세 정리할 일 있다면 바로 추진하는 것이 마음 편한 길이고.

애정 무난 건강 무난 재물 무난
38세 두갈래 길에서 고민하나 새로운 길 가는 것이 신변에 이롭고. 50세 주어진 환경의 틀을 벗어나면 곤란한일 생기니 자중하도록. 62세 떠날때는 말없이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마음편한 길. 74세 남의 일에 개입하면 구설생기니 조용히 지켜보도록.

애정 상승 건강 무난 재물 무난
37세 윗사람 도움으로 명예로운길이 열리니 오랜꿈 이루어지고. 49세 새로운 마음갖고 출발하면 좋은 결과 있게되니 믿고 따르도록. 61세 남보다 아래에 서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길이고. 73세 마음속에 품은 생각 함부로 노출하지말고 감정조절 잘하도록.

애정 무난 건강 무난 재물 무난
36세 퍼붓는 소나기도 하루종일 내리는 것은 아니니 힘내도록. 48세 발없는 말이 천리간다는 의미 되새기는 것이 후환 막는 길이고. 60세 더 이상 오를곳이 없다면 내려오는 것이 이로운길. 72세 자신의 실수 남에게 전가하는일 윗사람의 도리는 아니고.

애정 무난 건강 무난 재물 무난
35세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는일 멀리 보는 지혜로 시작을. 47세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되니 남의 일에 절대 개입하지 말아야하고. 59세 무리한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마음편한 길이고. 71세 아는 것이 많으면 갈피를 못잡게되니 너무 나서지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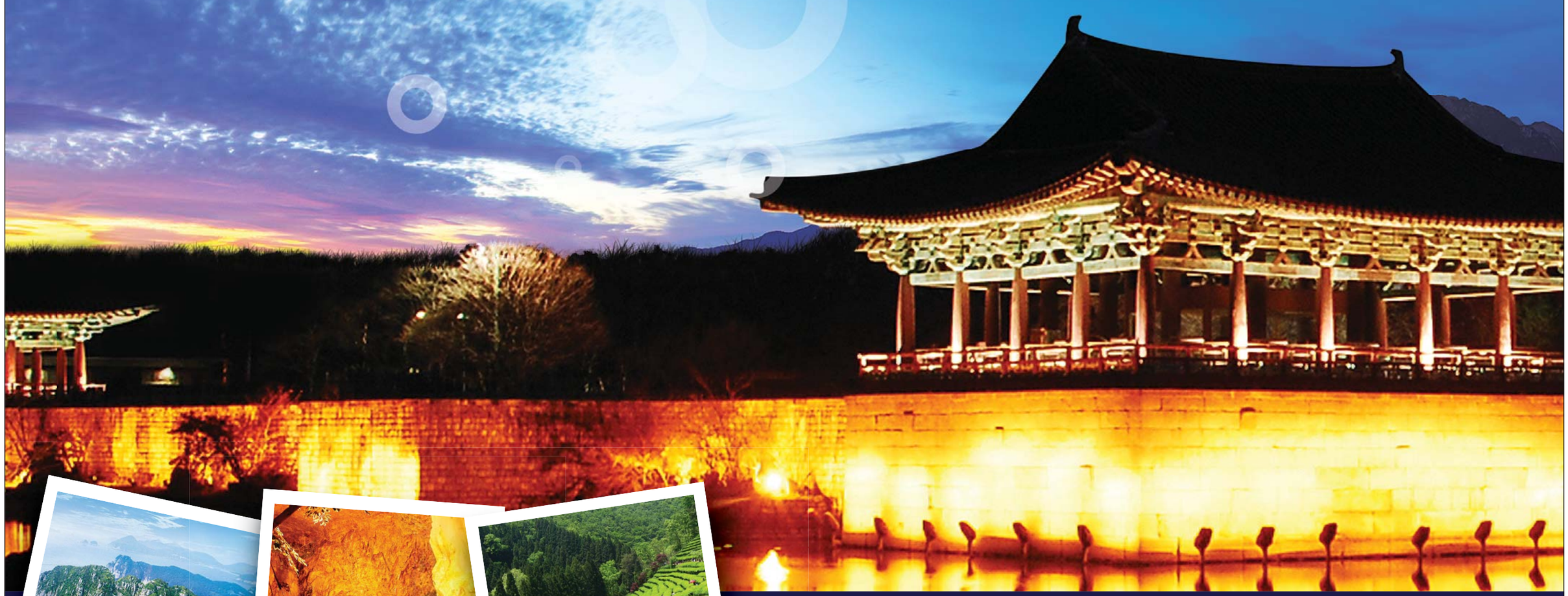
애정 무난 건강 무난 재물 무난
34세 남을 속이면 책임질일 생기니 진솔한 마음갖고 출발하도록. 46세 직접 나서지말고 실력있는 사람 활용하는 것이 이로울 수도. 58세 환경에 따라 자신의 위치도 변화시키는 것이 이롭고. 70세 마음이 급으면 세상이 흔들리는 법이니 욕심이 과한 탓.

애정 무난 건강 무난 재물 하락
33세 교만하면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되니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45세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과는 더 이상의 거래는 하지말아야. 57세 돈거래 아무런 이익없으니 정에 얽매이지말고. 69세 이성문제로 고민하나 해결기미 없으니 한발 물러서도록.

고향 경인 희망 70

2015 Korea Premium Tourism Exhibition

제1회 2015 대한민국 명품 관광대전



여행, 체험, 식도락, 테마관광 등의

관광 관련 융복합 전시

2015년 7월 9일(목) ~ 11일(토) 3일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알림 2관

경인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와 TV 조선은 명품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 살리기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명품 관광대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거대 여행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국내관광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국·내외 관람객에게 각 지역별 관광명품을 알림으로써 대한민국 경제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지역 별 여행 정보 및 여행 특전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국내 여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명품 관광대전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사관련 문의전화

경인일보 사업국 (031)231-5511

올 여름, 알찬 휴가를 고민 중인 모든 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이번 관광대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주최 종합미디어그룹 경인일보사 TV조선 江原日報社 경남신문 광주일보사 대전일보사 每日新聞社 부산일보사 全北日報社 제주일보

■주관 (주)코트파

■후원 경기도시공사

민선6기 뒤돌아본 1년

"가장 중요한 복지는 일자리 제공" 남동산단 지원·구민 채용 늘릴것

장석현 남동구청장

기업가 출신의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은 지난 한해 동안 주민 일자리 창출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남동구는 지난 2012년 부평구에 이어 인천에서 두 번째로 인구 50만명이 넘는 거대 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걸맞게 복지, 산업, 문화 등 구정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밤낮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장석현 구청장은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나 경제규모 등 여러 측면에서 남동구가 맏형 역할을 하고 있다"며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구정 운영으로 남동구가 인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구청장은 지난 한해 동안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란 구호를 내걸고 주민들의 일자리 만들어주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남동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을 둘러봤고 이들 기업이 지역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도 펼쳤다.

장석현 구청장은 "가장 중요한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신념으로 모든 구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 총력을 쏟았다"며 "기업의 채용 규모를 늘리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남동구는 지난해 관내 59개 기업이 참여하는 '미니클러스터'를 구축했다.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가 나서 기업들을 엮어주는 매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는 "기업 경쟁력 강화가 채용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며 "미니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임기가 끝날 때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 구청장은 "구민들의 실질적인 구인·구직 매칭 사업을 위해 기존 일자리상담센터 기능을 확대해 일자리 인력은행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동하고 있다"며 "일자리 전문 상담사 인력도 기존 2명에서 23명으로 늘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들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동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남동구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102개 업체와 '1사 1인 구민채용협약'도 체결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을 뽑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남동구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 구청장은 "우선 학교 주변 방범 취약지역 90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해 통합관제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학교 주변 가로등 239개도 추가로 달아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런 학교 주변 안전시스템과 함께 모든 주민들이 배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그는 "지난 3월 개관한 남동복지관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해 연간 8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수요율을 기존 54%에서 75%로 확대해 주민들이 양질의 어린이집을 갈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밖에 장석현 구청장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인 소래포구와 소래습지생태공원, 인천대공원을 연결하는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남동구에 있는 여러 관광·문화 자원을 통합하는 사업도 생각하고 있다"며 "일자리가 많아지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남동구가 완성되면 전국에서 으뜸가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장석현 구청장은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구정 운영으로 남동구가 인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동구 제공

취업상담원 10배 확대·1사 1인 매칭사업 추진
소래포구·습지공원 연결 관광단지 조성 '포부'

돌봄종사자 위한 '토닥토닥 힐링센터'

마음치유등 건강증진 교실
직무·산업 안전 교육 제공
요양보호사·보육교사 '미소'

지난 1월 문을 연 인천지역 돌봄종사자 쉼터 '토닥토닥'이 이용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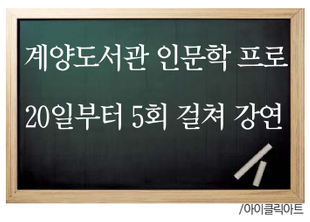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는 육체노동은 물론 그보다 더한 감정노동에 시달린다. 이 때문에 여성계에서는 돌봄 종사자들을 위한 자기 계발 프로그램이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에 인천여성회는 사단법인 '나눔과함께'와 뜻을 모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돌봄 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돌봄 종사자 쉼터 '토닥토닥'을 운영해 왔다.

토닥토닥은 단순한 쉼터 공간 뿐만 아니라 돌봄 종사자들의 건강증진(건강기초검사,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교실, 마음치유교실), 직무능력 향상(산업안전보건교육, 소식지발행), 건강지원 시스템구축(건강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성)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스트레칭 교실에 참가하고 있는 참가자 B씨는 "하루종일 아픈 사람들 돌보면서 내 몸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했는데 이런 장소가 있어서 잠시나마 편하게 쉴 수 있어 좋다"며 "일부러 시간을 내서 꼭 들르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들도 신청해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애 '토닥토닥' 건강지원사업 기획팀장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돌봄 노동자들도 돌봄을 받아야 '좋은 돌봄'이 가능하다는 상식에서 이 사업이 비롯됐다"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지역아동센터 교사, 간호사 등 돌봄 노동을 하는 분들이 쉬고 재충전할수 있도록 편안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돌봄종사자 쉼터 토닥토닥은 남동구 백범로 371 동양빌딩 4층에 위치해 있으며 이용시간은 월~금 9시30분~오후 8시30분으로, 모든 돌봄종사자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신수정 시민기자

고대에서 근대까지 특별한 서양사강의



/아이클릭아트

인천시 계양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5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돼 지난 5월 '백석 시 산책'과 6월 '감동이 있는 건축이야기'를 성황리에 마치고, 오는 20일부터 '나의 서양사 편력'이라는 주제로 저자 박상익 교수를 초빙해 인문독서아카데미 3기를 운영한다.

'나의 서양사 편력'은 20일 인류 탄생을 이야기하는 '태초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를 시작으로, 27일 로마문명에 대한 이야기 '서양문명의 뿌리', 8월 3일과 10일은 유럽에 대한 이야기 '로마제국의 후예들'과 '암흑시대의 오명을 벗어라', 17일은 '우리 모습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5회에 걸쳐 실시하며, 세계사를 뛰어넘어 아주 오래 된 지구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주제와 관련한 도서의 저자를 초빙해 직접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직장인과 청소년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야간 강좌로 운영된다.

참여대상은 고등학생 및 성인들로, 6일부터 선착순 100명을 모집하며, 강의는 이달 20일부터 8월 17일까지 5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이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

안전협회 창립 2주년 지정기부금단체 선정

(사)한국학부모안전협회(회장·고종철, 이하 안전협회)가 지난 1일 창립 2주년을 맞으면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다.

국민안전처 인가 사단법인인 안전협회는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마음을 나누며 마음껏 웃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안전협회는 국가 인가 단체로는 이례적으로 인천에 주 활동 근거지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13년 7월 협회 전신인 학부모총연합회로 출범한 후 지난해 11월 6일 안전행정부에서 인가를 받아 공식 설립됐다.

안전협회는 입시설명회와 거점학교 만들기, '사제동행 고고고', 학부모 인성교육 등의 행사를 치르는 등 우리 교육 현실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 해결과 학교폭력 예방 등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 60개 학교와 서울, 부산 등 1천2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안전협회는 창립 2주년을 맞아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으며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 수요처로 선정돼 학생들에게 봉사점수 부여가 가능한 단체로 인정받았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

운서주민센터 여권업무

인천 중구는 오는 13일부터 영종청사 운서동주민센터에서 여권 발급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그동안 영종·용유지역 및 옹진군 도서지역의 주민과 인천국제공항, 외국투자기업, 공항종사자 등을 위한 행정처리 기관은 존재하나 일반여권 발급기관은 없어 영종대교 또는 인천대교, 선박 등을 이용해 서구, 연수구청 등에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여권 발급 업무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13일부터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12시~1시 제외)까지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

주최 :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 INIS 인천정보산업진흥원 Incheon Information Service
주관 : 경인방송 FM 90.7 OBS

2015 인천N스타

공모주제 : 보컬분야 / 개그분야
공모목적 : 신인 스타 발굴을 위한 동영상 콘테스트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혹은 팀단위)
프로 및 아마추어 관계없음
접수기간 : 2015. 4. 20 ~ 7. 31 / 15주간
본선무대 : 2015. 8월 중 개최 예정 (송도세계문화축제 무대)
공모내용 : 보컬분야 – 장르 불문 노래 1편이상 동영상(기성/자작 제한없음)
개그분야 – 누구나 웃을 수 있는 개그소재의 3분이내 동영상
공모방법 : 인천N방송 접속 및 가입 후
골목소식–인천N스타 카테고리 내 영상 직접 게시 및 서류제출
수상혜택 : 연예인 활동지원 및 70인치 대형TV, 노트북, 상품권 등의 부상증정

인 전 지 역 스 타 발 굴 오 디 션

※ 게시된 공모전 요강은 주최측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최 측 홈페이지 통해 세부사항을 재확인 후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N방송 참여 혜택
지역신문 오늘의 화제뉴스 보기
전문기자의 현장뉴스 시청
시민이 직접 만든 영상부터 관광, 행정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공
남인천방송 내 인천N방송 프로그램 (열린채널N) 시청 가능
대학 방송학과 작품 등 고품질 영상 시청

인천N스타 참여방법
– 웹사이트 : www.incheonNtv.com
– 스마트폰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인천N방송] 앱 검색
※ 서비스 및 공모내용 문의 : (032)250-2142~3

인천N방송 검색
※ 네이버, 다음 등 대형포털 검색 창에 인천N방송을 검색해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민선6기 뒤돌아본 1년

공직비리 없애기 '깨끗한 변화' 열린 시장실로 '소통하는 행정'

이필운 안양시장

"초심을 잃지 않고 안양의 미래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민선6기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은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데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한해였다"며 "더 좋은 안양을 만드는 데 노력하는 한편, 시민에 더 가까이 가고자 진력을 다 해 왔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그동안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치고자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며 시민과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소해 왔으며, 또한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찾아가는 진심토크'도 지속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깨끗한 변화는 부정부패 척결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민·관이 참여하는 '공직비리척결위원회'운영과 강도 높은 청렴도 종합대책을 추진해 왔다"며 "아울러 행정기구 개편, 사무전결권 및 7급 이하 전보권 등을 하향 조정해 책임성을 높이는 투명한 행정개혁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전국적 이슈인 시민 안전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시민 안전불감증 개선을 위해 "민방위 체험관을 개관해 심폐소생술 등 재난상황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재난관련 법규 정비와 7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약체결 등을 통해 재난대응능력 기반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그는 "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한편, 생활안전지도서비스, 학생통학버스 모바일 안심 귀가 서비스 등 최첨단 거미줄 안전망을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그는 "도시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답보상태에 있는 안양5동 냉천지구는 사업자를 LH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변경해 해결하고, 안양9동 새마을 지구는 경기도 맞춤형 정비 사업과 병행해 기반시설을 착실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호계 복합청사 개관 및 동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완료,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착공 등을 통해 주민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시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오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1년간 시민과 한마음으로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초심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이필운 안양시장이 1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6기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간의 시정 주요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진심토크 주민들과 스킨십

7급이하 전보권 하향 조정

재난 법규정비등 대응 해법

경원선 복선전철 기공식 '감동' 대륙철도 건설·통일의 길 활짝

김규선 연천군수

"통일대박! 미라클 연천, 기적을 창조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민선 6기 취임 1년을 맞이한 김규선 연천군수는 "남은 임기 3년을 멈추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기관차 행정을 펼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31일 동두천 ~ 연천(20.8km) 경원선 복선 전철 기공식을 치른 김 군수는 "지역발전의 힘인 사회 간접시설 인프라 구축 첫 삽 행사는 마치 음악 홀에 울려 퍼지는 행진곡 연주로 착각할 정도로 감동이었다"고 회고했다.

1일 환경미화원들과 아침 거리청소를 하면서 군정 설계를 가다듬은 김 군수는 "으뜸 연천, 명품 연천을 만들기 위해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 마음이 동화되는 새로운 연천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군수에게 경원선 복선 전철 기공식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온 이유는 약 3천800억원이 투입돼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는 단순한 사업 이유만이 아니다.

유라시아를 잇는 대륙철도 건설과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전철 기공식은 거대한 공룡 알이 서서히 부화 되고 있는 것"이라며 "가상으로만 여겼던 지난날 이상이 눈앞에서 현실이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김 군수는 덧붙여 강조했다.

이어, 김 군수는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군과 주민들의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 노력이 접경지역 발전 접경이라고 강한 신념을 드러내며 결실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을 포함한 4개국이 참여해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한 김 군수는 "연천군이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를 거점으로 남북간 인적교류 및 통일정책 국민대 통합 길을 열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공무원들에게 항상 민의 창조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김 군수는 지난해 12월 실험적으로 실시한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 성공사례 필요성을 언급했다.

"풍부한 자원을 소유에 그치지 말고 응용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발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의 실천과제로 임진강 변 생태탐방로, 한탄강 둘레길 조성,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남은 과제가 마무리 되면 지역경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지지부진했던 백학산업단지 분양률을 90%로 끌어올린 김 군수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및 국도 37호선이 준공되면 전철과 함께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이 완비돼 성장만을 남겨놓고 있다"며 조기완공 노력을 약속했다.

'연천발전은 국가발전'이라고 연천의 미래를 함축한 김 군수는 "연천이 바로 한반도 중심이기 때문에 삼천리에 뻗어있는 기운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배경설명과 함께 도전정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연천발전은 국가발전'이라고 연천의 미래를 함축한 김규선 군수는 "남은 임기동안 앞만 보고 달리는 기관차 행정을 펼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연천군 제공

구석기 겨울여행 '성공 사례'

풍부한 자원 활용 발상 필요

국도 37호선 조기완공 노력

배수 펌프장 용량 늘려 비피해 줄인다

김포시 지역빗물 배수 위해 증설

계양천등 지방하천 정비 사업도

김포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한강 하류에 있는 김포는 수도권 지역 홍수 때 한강 상류에서 빗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데다 서해안 밀물 때 바닷물이 올라오면서 강물 수위가 급격히 상승한다. 이 때문에 한강 하구 일원을 끼고 있는 김포시는 자연 배수가 안 돼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 빗물을 강제로 한강으로 퍼내는 배수 펌프장을 가동하고 있다.

최근 들어 홍수 때 저류지 역할을 했던 농경지가 대규모 택지 등으로 개발되면서 빗물을 바로 빼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시는 펌프장 용량을 늘리고 하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포 풍무동 지역과 인천 서구 검단 지역의 개발로 빗물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빗물을 빼내는 향산배수펌프장 용량을 33㎥/s에서 109㎥/s로 3배가량 늘리는 공사를 진행중이다. 한강신도시 마산·구래동 지역 빗물 배수를 위해 78㎥/s의 봉성펌프도 배수용량을 181.5㎥/s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엔 한강신도시 내 운양동·장기동 지역 빗물을 퍼내는 운양펌프장의 용량을 32㎥/s에서 127㎥/s로 4배 늘렸다. 김포에는 11개 배수펌프장과 규모가 작은 6개 간이펌프장이 가동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지역 곳곳을 흐르는 하천의 폭을 확장하거나 곧게 펴는 정비사업도 벌이고 있다. 향산펌프장과 연결되는 계양천, 운양펌프장에 이르는 나진포천, 봉성포천, 가마지천 등 4개 지방하천이 2016~2018년까지 정비된다. 이들 지방하천과 마을을 잇는 양곡천, 고창천, 학현천, 원산천, 구래동천 등 5개 소규모 하천 정비 사업도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펌프장 확충과 하천정비 사업에 드는 예산은 총 2천985억원. 김포시 노순호 시 안전총괄과장은 3일 "과거 자연재해를 분석하고 앞으로 빗물 증가량을 예측해 자연재난 예방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들 펌프장 확충과 하천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비 피해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김포 운양배수펌프장 가동 모습. /김포시청 제공

서희리더십 배우는 글로벌인재 '새싹'

이천시 초·중학생 무료아카데미

갈등 해결 하기… 11일 '첫수업'

이천시는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특강 프로그램인 '서희리더십 아카데미'를 무료로 운영한다.

서희 리더십 아카데미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이천의 역사적 인물인 서희 선생의 기상과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기 내면과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고, 글로벌 리더의 소양을 닦아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며 세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희 리더십 사관학교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7~8월(매주 토요일 오전 9시~낮12시30분)까지 2주씩 3차(1차 7월 11·18일, 2차 7월 25, 8월 1일, 3차 8월 22·29일)에 걸쳐 회차당 20명 이내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효양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첫째 날에는 마을 열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리더십, 지혜로운 리더, 용기 있는 리더 등을 배우고, 둘째 날에는 배려하는 리더, 신뢰받는 리더, 소통하는 리더, 리더의 새로운 출발 등을 익히게 된다.

수강 신청은 1차 교육의 경우 7월 10일, 2차 교육은 7월 24일, 3차 교육은 8월 21일까지 이천시 홈페이지나 이천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이메일(syny66@hanmail.net)이나 팩스(031-631-2158)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이천시 평생학습과 (031-644-4343)

이천 /박승용·서인범기자 psy@kyeongin.com

광명소방서 '국민행복 안전정책' 최우수 기관

광명소방서(서장·김권운)가 '국민행복 안전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전국 소방서에서 지난해 추진한 국민행복 안전정책(7개 분야 20개 시책에 44개 지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발표했다. 이 결과 광명소방서가 경기도내 소방서 중 1위를 차지한 것이다. 광명소방서 전 직원은 지속해서 우수한 시책 발굴에 힘써 오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하남도시공사, 전국 1위 영예

하남도시공사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는 지방공기업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및 대면조사를 통해 전국 332개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공사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아 85.06점으로 전국 기타 공사·공단 부문 10개 공사 중 1위로 선정됐다.

공사는 그 동안 '소통경영, 혁신경영, 성과경영, 신뢰경영'이라는 경영 방침으로 토대로 고객 간담회, 고객감사의 날 지정, 모니터요원 운영 등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실천해왔다.

또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서비스 전략 워크숍을 개최해 고객의 니즈(needs)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고객의 소리를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을 즉각 시정 및 개선해 고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만족도 조사 1위에 걸맞은 지방공기업으로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고객분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고객에게 사랑받는 한국 최고의 지방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군포문화원 5년째 개점휴업 애꿎은 시민들만 '부글부글'

원장 선출 놓고 소송 파행
향토사료조사 등 업무중단
市 "내부갈등 심화 난감… 빠른 시일내 정상화 노력"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문화 발전을 이끌어가야 할 군포문화원이 원장 선임과 절차 등에 대한 소송으로 5년 가까이 파행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기간 정상화가 불가능해 보인다.

5일 군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 답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월 당시 원장이던 S씨 등의 업무상 횡령에 따른 벌금 이후 시작된 새로운 원장선출과 임원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며 기존 원장 측과 새 원장에 도전하는 측의 임시총회 부존재 확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10여건의 소송과 고소 고발이 이뤄지며 수년째 대립하고 있다. 시의회에서도 해마다 군포문화원 원장선출 등 파행 운영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집행부에 질의와 대책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군포문화원장 선출을 놓고 소송전이 이어지며 현재 문화원은 본연의 업무인 향토사료 조사연구나 전통문화 보존 전승, 행사 등 주요업무를 못하고 있다. 시에서 관련 법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관리운영 경비 보조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년전 새로 지어진 문화원사에 직원 3명을 파견해 문화강좌, 향토사료관·작은 도서관 등 부수적 업무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원장선출을 놓고 문화원 구성원이 양측으로 나뉘어 선출과정과 선임 결의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난감하다"며 "빠른 시일 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은 "문화원장 자리를 놓고 수년째 법정 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군포 문화 정체성의 중심이 되어야 할 문화원을 잘 이끌 수 있겠냐"며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군포/윤덕흥기자 ydhr@kyeongin.com

천연기념물에 둥지 구멍 '간 큰 딱따구리'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

깊은 숲에서 '탁탁탁' 나무 찍는 소리로 우리에게 친숙한 딱따구리가 때아닌 유해조수 논란에 휩싸였다. 하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에 구멍을 뚫어 둥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끝난 양주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길서 의원은 "천연기념물인 남면 황방리 느티나무가 딱따구리로 인해 훼손이 심각하다"며 "정기적 관리를 통해 천연기념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시에 촉구했다.

850년된 보호수 훼손 심각
희귀종 탓 포획 못해 '골치'
시 "상생방안 마련 고심중"

양주시의회 박길서 의원이 천연기념물인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의 딱따구리 둥지(원안)를 가리키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는 수령이 약 850년 된 보호수로 남면 봉암삼거리에서 황방리 노정서예관으로 들어가는 마을 입구 공터에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으며 지난 1982년 천연기념물 제278호로 지정됐다. 이 나무는 황방리에 살던 밀양박씨 조상들이 심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높이 21m에 밑둥 둘레는 12m로 나무 상단의 가지와 잎이 동서로 27m, 남북으로 27.3m나 퍼져 있다.

그러나 이 느티나무에 해마다 번식기가 되면 딱따구리들이 가지 곳곳에 구멍을 뚫고 둥지를 틀어 나무를 신성시하는 마을 사람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마을 이장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느티나무 주변에 수령이 100년 이상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도 매년 번식기만 되면 딱따구리가 이 나무에만 구멍을 파고 둥지를 틀고 있다"며 "현재도 가지 곳곳에 10곳이 넘는 구멍이 뚫려 있고 구멍이 파인 가지는 안쪽부터 썩어 들어가 가지가 부러지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시는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 딱따구리 퇴치에 나서야 하나, 딱따구리도 개체 수가 줄어 보호해야 할 종이라서 일반 유해조수처럼 포획 또는 사살할 수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딱따구리를 쫓기 위해 올해 가지에 난 구멍을 모두 막는다 해도 내년에 다른 가지에 또 구멍을 뚫으면 이를 막을 뾰족한 방도가 없어 보호수와 희귀종의 상생을 위한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청딱따구리, 까막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등 9종의 딱따구리가 있다"며 "이 중 까막딱따구리는 멸종위기종으로 천연기념물 제242호로 지정돼 있어 먼저 이곳에 둥지를 튼 딱따구리의 종부터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황방리 느티나무는 연간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기 모니터링과 약품 투여 등 보호를 하고 있는 만큼 천연기념물 관리업체와 피해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상헌기자 lsh@kyeongin.com

오산 신장동 주민센터 개청식에서 곽상욱 오산시장 등 참석 내외귀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오산시 제공

오산 신장동 복합 신청사 문열어

건강지원센터 운영 복지강화

오산 신장동주민센터가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복합된 주민 밀착형 공간으로 조성돼 오산 시민들과 다시 만난다.

오산시는 최근 '신장동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복합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2천819㎡ 규모로 건립된 신장동주민센터는 세교지구 행정수요 해결은 물론 지역민들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건강지원센터에서는 비만클리닉·건강매니저사업,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광주 '건축디자인 자문' 성과

광주시가 지난 2011년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해오던 '건축디자인 자문제도'를 세분화해 운영, 민원처리 단축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된다.

5일 시는 건축디자인 자문제도를 용도·규모별 지붕모양, 입면, 색깔 등 세분화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올 초부터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건축디자인 자문서류 접수 후 전문가 일정에 맞춰 가부 결정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자문제도 변경 운영으로 담당공무원은 세부 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검토 후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는 민원처리 기간을 2~15일 단축했으며, 연간 800건의 건축자문이 30건으로 줄어 자문수당 1천여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성남시립의료원 위탁규정 강제➡임의로

시의회, 개정 조례안 의결… 새정치 "시민 선택에 맡겨야"

성남시의회 여야가 갈등을 빚은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규정(경인일보 7월 1일자 인터넷판 보도)을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에서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했다.

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제212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정종삼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6명이 발의해 지난 5월 14일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됐다.

시의회 새정치 소속 의원들은 "대학병원이나 공공 의료기관이 시 의료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 조항을 둬 시민 선택에 맡기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대학병원에 위탁을 맡겨야 한다"며 조례안 개정에 반대했다.

앞서 성남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등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회복을 위해 시립의료원 위탁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해 새정치 의원들이 개정안을 의원 발의했다.

시립의료원은 전체면적 8만1천여㎡ 규모로 22개 진료과와 501병상 등을 갖춰 2018년 초 개원할 예정이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고양시 제2부시장 공개모집
전·현직 공무원 등 7명 지원

고양시는 최근 마감한 제2 부시장 공개모집에 7명이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일 마감된 제2 부시장 지원자는 2~5급 전·현직 공무원 3명, 전직 도·시의원 각 1명, 대기업 간부 출신 2명 등 7명이 지원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서류를 심사한 뒤 지원자 중 2~3명을 인사위원회에 추천, 최종 1인을 제2 부시장에 임용한다는 방침이며 임용일은 내달 1일이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모바일 CCTV 뷰뷰(ViewView)

침입과 동시에 휴대폰으로 영상통화 연결!

뷰뷰는 SK TELECOM의 영상통화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영상 전달이 가능한 원하는 장소에서 휴대 전화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CCTV 서비스입니다.
사람이 없는 설치공간에서 동작이 감지되면 센서가 작동되어 현장영상이 즉각 영상과 캡쳐로 감시자에게 전송, 저장됩니다. 특히 뷰뷰와 영상통화 핸드폰은 연동이 가능해 침입한 외부인에게 음성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 간단히 설치
- 보안이 취약한 가정집
-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는 소규모 점포
-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노인이나 아이
- 출근 후 상황 체크가 필요한 애완동물
-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의 방범

문의 032) 465-1144

인천 소형공장 임대

● 소재지 : 가좌 I·C 주변
– 인천지하철 2호선 역세권(개통예정)

● 면적
–1층 264㎡(80평)
–1층 331㎡(100평)
–2층 264㎡(80평)
–2층 331㎡(100평)

● 기반시설, 혜택
⊙화물 엘리베이터(2T) 시설 10대
⊙주차장 : 216대 주차시설
⊙동력 : 제한 없이 사용
⊙1층, 2층 함께 임대 가능(임대료 할인)
⊙평수 다량 보유
⊙즉시 입주

임대문의 032)772-1680 032)861-2900

밤을 잊은 파라솔족… 밤을 잃은 주민들

"무더위에 소음까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지난 4일 자정께 화성시 반송동 아파트 단지 일대 한 편의점. 얇은 옷 차림에 삼삼오오 모인 이른바 '파라솔족'들이 캔맥주를 마시며 떠들어대고 있었다. 이 편의점에서 설치한 파라솔만 3개로, 주변은 마치 선술집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

찜통더위에 줄지어 밖으로 편의점, 보행로 불법 영업 술판·소음 피해 민원 급증

지난 4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음식점들이 일반 보행로에 파라솔 등을 설치해 야외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테이블 곳곳에는 마른 오징어와 땅콩, 편육 등 각종 인스턴트 식품 쓰레기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뒹굴고 있었다. 이들이 사용하던 종이컵과 소주병 안에는 피다만 담배꽁초만이 가득했다.

같은 시각 수원시 고색동의 한 초등학교 주변 음식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통행로를 따라 파라솔이 늘어서 있는 이곳은 육교로 올라가는 보행로를 가로막은 파라솔 탓에 종종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사람 한 명 채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좁아 보였다.

인근 주민 김모(52)씨는 "기분을 내는 것은 좋지만 야밤에 박수를 치며 깔깔대고 웃어대는 통에 잠을 잘 수가 없다"며 "인도에 마구잡이로 설치된 파라솔에 보행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도로법상 인도 위에 설치된 파라솔은 불법 점유물로 분류되지만,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대부분 상인들은 파라솔로 인도 위를 점령하고 있다. 일부는 도로에까지 파라솔을 내놓고 장사에 열을 올리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관련 민원도 급증, 관할 구도 바빠졌다. 수원 영통구청의 지난 5월 말 기준 인도 위 파라솔 철거 실적은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34건까지 증가했고, 용인 수지구는 45건을 기록했다. 지구대·파출소에도 '파라솔족'을 쫓아내 달라는 신고가 매일 이어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들어 민원이 빗발쳐 상습 신고 구역이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곳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며 "세 차례 이상 경고에도 파라솔을 치우지 않으면 강제 철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서만 단속을 펼치거나 오후 10시 이후에는 순찰을 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역 한 상인회 관계자는 "손님들이 더위를 호소하며 '야외에 테이블을 펼쳐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다"며 "가뜩이나 장사도 안돼 여름 한 때 설치하는 건데 단속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

수능원서 내달 27일부터

오는 11월 12일 실시되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7일부터 시작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5일 발표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12일간이다. 또 11월 12일 수능이후 이의신청 심사를 거쳐 11월23일 최종 정답을 발표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2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되고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은 원서를 낸 기관에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이 제공되고, 수학시간에 한해 문제풀이 과정을 저장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또 올해 수능은 지난해처럼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만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이 치러지고, EBS와 수능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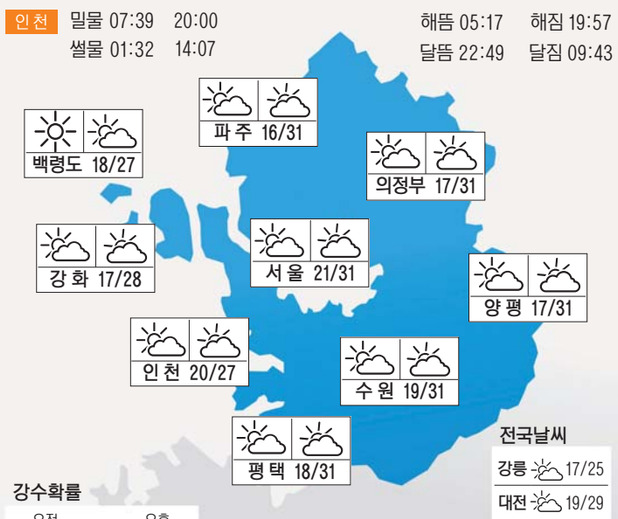
날씨 | 6일 월요일 (음력 5월 21일)

나무그늘 아래로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 16~21도, 낮 최고기온 27~31도의 분포가 되겠다.

인천 밀물 07:39 20:00 썰물 01:32 14:07

해뜸 05:17 해짐 19:57 달뜸 22:49 달짐 09:43



전국날씨

강릉	17/25
대전	19/29
광주	19/27
대구	19/29
부산	19/25
제주	20/23

강수확률

오전 오후

수원, 인천, 서울, 강릉,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바다날씨

	풍향	풍속	파고
서 해	남서~서	4~7	0.5
남 해	북동~동	5~11	0.5~1.5
동 해	북~북동	5~9	0.5~1.0

오늘 이후 날씨

	7일(화)	8일(수)		7일(화)	8일(수)
인천	21/26	21/25	수원	20/28	21/27
서울	22/28	21/26	의정부	19/30	20/27
파주	22/28	21/26	백령도	19/24	19/23

장기결석자 수십명 '유급사태' 막을까

메르스 감염 우려탓 수업일수 부족… 대책마련 고민 경기도교육청 "보충 수업·과제·온라인수업 등 지원"

경기도내 메르스 휴업 학교들이 모두 정상 수업으로 돌아왔지만 감염우려로 장기결석중인 학생들이 아직도 수십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일부 학생들의 경우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도내 초·중·고교가 지역별 순차적으로 수업정상화를 실시, 현재 전체 4천505개교가 모두 정상 수업중이다. 하지만 수십여명의 학생들이 메르스 감염을 우려해 장기결석중이다. 지난 1일에도 73명의 학생들이 결석을 했고, 2일 64명, 3일 54명 등이 결석을 한 상태다. 이들 학생들은 지난달 2일 화성지역의 학교가 첫 휴업한 점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최장 한달 이상 등교하지 않은 셈이다. 장기 결석을 하는 학생들은 메르스 감염 불안과 보건당국의 방역 불신 등으로 등교를 자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해 정규 수업일수 190일 중 64일을 결석하면 학년 유급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와 도교육청은 '결석처리' 원칙을 세웠지만, 유급을 막기 위해 대책마련에 고민 중이다. 메르스 사태로 장기결석하는 학생들이 특수학급 학생 또는 초등학생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급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메르스 우려로 자진결석하는 학생들을 강제로 등교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수업 결손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수업, 과제수업, 온라인수업 등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열 등 메르스 유사 증상으로 학교측이 자체 조치해 등교를 중지한 학생도 323명에 달하고 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186번 환자 '감염 경로 미스터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확진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나흘째 발생했지만 감염 경로가 모호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가족 간 혹은 병원 내 감염 가능성 모두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5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판정을 받은 186번째 환자(50·여)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됐던 132번째 환자(55)의 부인으로, 지난달 29일 유방암 치료차 같은 병원 암 병동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186번 환자가 남편으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남편이 격리된 지난달 11일부터 21일이나 지난 시점에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면서 삼성서울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을 때 감염됐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삼성서울병원 내 바이러스 오염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상태로 186번째 환자가 남편으로부터 감염되지 않았다면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는 186명 중 91명(48.9%)이 된다.

한편 이날 격리 중인 사람은 모두 982명으로 주말 새 1천85명이 줄었다. 메르스 격리자가 1천 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1일 이후 한 달 여만이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결혼하는 딸 도움못줘서…" 아내 살해·자살기도 '선처'

결혼하는 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을 비관해 아내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풀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신상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3년간의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8시 20분께 인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아내(51)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딸에게 결혼비용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것을 자책해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아내와 딸이 모두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안전문제 심각한 정비구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시 부평구 십정2지구에 대한 사업부지 축소와 손실액 보전을 요구하면서 인천시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인천 최대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인 부평구 십정2지구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십정2지구 주민들 "LH, 취약층 주거복지 의지없다"

공사지연 속 사업부지 축소·손실액 보전까지 요구
인천시도 "법에 없는 내용… 터무니없는 일" 일축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최대규모의 주거환경개선 지역인 부평 십정2지구에 대한 사업부지 축소와 손실액 보전을 요구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십정2지구는 40여년 전 철거민들이 국공유지 야산에 흙벽돌과 시멘트로 지어 필수기반 시설도 제대로 없는 집과 폐가·공가·위험건축물 220개소를 포함한 1천500개 건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 2007년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LH는 사업시행을 조건으로 기반시설보조금 279억여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받고 국공유지 19만3천여㎡를 무상으로 받았다. 인천시는 이 지역의 빠른 사업시행을 위해 용적률 조정,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면적 축소, 지하주차 비율 30% 완화 등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낮춰주기도 했다.

그런데도 LH는 사업여건 변화, 부채감축 등을 이유로 사업완료 예정이던 2014년 12월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LH는 지난 5월부터 사업부지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 안(19만3천여㎡→9만여㎡)을 추진 중이고, 손실액 466억원을 인천시가 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주민에게 분양가 혜택도 줄 수 없다는 게 LH의 입장이다. 지난 6월 29일 국회서 문병호(새정치·부평 갑) 국회의원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LH 이재영 사장은 똑같은 입장만 되풀이 했다. 이자리에는 십정2지구 주민들이 함께했다.

주민들은 그러나 사업부지를 축소하고, 손실액마저 내라고 하는 것은 LH가 책임져야 할 취약계층 주거 복지에 전혀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찬구 십정2지구 주민대표위원장은 "흙벽돌집은 금이 가고 축대는 점점 기울며, 붕괴사고도 잇따라 불안하다"며 "안전문제가 심각한 만큼 조속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 역시 LH의 손실액 보전 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에도 없는 손실액 보존과 주민동의 없는 사업부지 축소 요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 이상 LH가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십정2지구는 지형·위치상 손실이 큰 구역으로 부채감축 문제로 불가피하게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손실 보전이 있으면 시행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교통사고 낸뒤 유서 남긴 50대… 야산서 숨진채 발견

유서를 지닌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로 경찰 오토바이와 차량 등 3대를 들이 받은 뒤 달아났던 50대 운전자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강화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9시 55분께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여자중학교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황모(56)씨를 발견했다고 5일 밝혔다.

숨진 황씨는 전날 오후 1시 5분께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의 한 사거리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경찰 오토바이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강화경찰서 소속 안모(50) 경사가 가슴 등을 크게 다쳤고, 다른 차량에 탔던 7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황씨는 미리 작성한 유서를 사고 현장에 있던 행인에게 건넨 뒤 달아났다. 유서에는 '딸한테 미안하다. 부인에게 미안하다. 살기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씨가 미리 유서를 남긴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를 버리고 달아난 황씨가 인근 야산에 숨어 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호·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승강기 女兒 둘·노인 성추행
경찰, 신원미상 남성 추적중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내에서 8세 여자 아이 2명과 80대 할머니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8살짜리 여아 2명과 A(87·여)씨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승강기 CCTV 확인 결과 60~70대로 보이는 남성이 아이들을 뒤에서 끌어안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 남성의 동선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가스公 공사강행 속셈" LNG 기지 설명회 무산

"형식적 의견수렴" 주민 반발로 시작 10분만에 중단
공사측 "주민동원은 오해"… 7·9일 일정도 파행 우려

한국가스공사가 인천생산기지(송도 LNG기지) 증설을 위해 진행하려던 주민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가스공사는 지난 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의 한 음식점에서 송도 LNG기지 저장탱크 증설과 관련해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200여 명(경찰 추산)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가스공사는 2019년 10월까지 연수구 송도동 25만5천353㎡에 20만㎘ 규모의 LNG 저장탱크 3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LNG 저장탱크는 현재 20기에서 23기로 늘어나고 전체 저장용량은 약 348만㎘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LNG 기지가 증설되면 안전한 도시, 친환경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송도에 위험시설이 더욱 늘어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증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 적극 수렴'을 허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고, 가스공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곳을 찾은 LNG기지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행사 시작부터 거세게 반발하면서 설명회는 10분 만에 중단됐다.

이들 주민은 '가스공사가 요식행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도국제도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인천 LNG기지 이전촉구 주민대표 위원회' 김성훈 대표는 "이번 설명회는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가스공사가 주민들을 동원해 설명회를 여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여론 수렴 절차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설명회 일정을 공지하면서 '주민동원'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며 "설명회는 주민에게 시설과 안전사항에 대해 알려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일단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7일과 9일 열릴 예정인 주민설명회도 파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외국인연출자 계약기간 위반 묵인 등
인천시립극단 주요 책임자 징계절차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 상주 단체인 인천시립극단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문예회관은 공연을 위해 초청한 외국인 연출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돌아갔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주요철 인천시립극단 예술감독에 대해 징계를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해 받은 전 단무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문예회관에 따르면 주 감독은 지난 5월 '로미오와 줄리엣'을 정기공연하면서, 러시아에서 초청한 책임연출가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31일)을 채우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공연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문예회관은 또 주 감독이 수차례 극단 사무단원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함께 조사를 받은 김씨는 극단 행정사무를 총괄하면서 예술감독의 서명이 필요한 출장·초과근무 수당 관련 서류에 대리 서명하는 방식으로 310여만 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주 감독은 "책임 연출을 맡은 러시아 연출자가 17일 동안 작품 제작에 참여하고 남은 기간 다른 러시아 연출자에게 맡기고 돌아가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데 전혀 무리가 없었다"며 "단순히 체류기간이 적다고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무단원에 대한 폭언의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씨도 "초과근무나 출장 업무 시 대리서명해도 된다는 예술감독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미스터 달팽이 (1779)
이공명

참가인원

학생대원, 대학생 및 청소년 멘토, 현직교사멘토, 영상활동가, 의료진, 차량 운영 및 관리 요원, 경찰청 에스코트, 119소방본부, 적십자요원, 신문기자(총인원120명)

참가대상 및 모집인원

- 중학생 / 남20명, 여20명
- 고교생 / 남20명, 여20명학생
- 대학생 및 청년 멘토 10명
- 진행본부 5명
- 영상 자원 활동가 2명
- 현직교사 멘토 3명(현직교사)

※ 전화 신청요망

참가회비

14만원(단체급식비)

접수기간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 /인터넷을 이용한 접수순(신청서+참가비)

접수방법

다음카페 "인천바로알기종주단"의 "종주단 행사 알림" 방에서 "제15회 인천바로알기종주 행사계획"과 "종주참가 신청요령"에 따라 참가신청서 접수하고 참가비 입금하면 접수 완료됨.

접 수 처

인천바로알기종주단/032–439–5678
다음카페 http://cafe.daum.net/inkangyoung
※ 종주와 함께 자원봉사활동(20시간) 진행
※ 참가자 전원에게 종주단 단복(2벌) 및 배낭 지급

인천의 역사와 숨결을 느끼기 위해 산과 바다 그리고 다양한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제15회 인천바로알기종주'

민족의 성지인 강화를 비롯해 계양산, 철마산, 송도신도시, 장봉도 등 인천 곳곳을 오롯이 두 발로 찾아가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책임감과 동료애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인천바로알기종주에는 **80명의 인천지역 청소년**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문의 : 인천바로알기종주단 **032-439-5678**

주 최 | 종합미디어그룹 경인일보사 인천바로알기종주단 주 관 | 인천바로알기종주단 후 원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의회 가천문화재단 Gachon Cultural Foundation